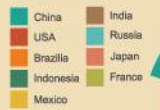


agriculture farming infographic elements



The largest countries that produce fowl livestock (a Million heads)



poul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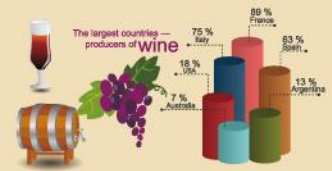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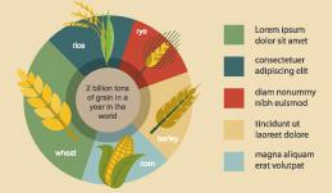
be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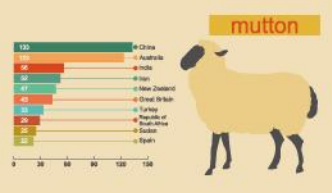
Top 5 producers of pork (millions of head)



pork



world production of olives



mutton

축산업·기업 분석 및 전망 용역(4차) - 축산업 이슈 분석

국내외 질병 발생에 따른 축산업 영향 점검

2026. 6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제 출 문

축산업 · 기업 분석 및 전망 용역(4차)

축산물품질평가원 귀하

본 보고서를 “축산업·기업 분석 및 전망 용역(4차)” 8차보고서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FICC리서치부

연구책임자: NH투자증권 황 병 진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C/O/N/T/E/N/T/S

I. 가축질병에 대한 이해	9
II. 국내 발생 동향 및 영향	17
III. 해외 발생 동향 및 국내 파급 가능성	39

[주요 용어 정리]

구분	주요 내용
병원체(pathogen)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나 기생 생물을 의미
숙주(host)	생물학에서 기생충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기생물이 기생하는 대상의 생물
살처분	전염성 가축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된 가축 또는 감염 우려가 있는 가축을 죽여서 처분하는 행위
구제역	FMD(Foot-and-Mouth Disease).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우제류 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감염된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과 궤양이 생기는 것이 특징
백신항체양성률	전체 검사 개체수 중에서 일정 항체양성 기준 이상으로 판정된 양성 개체들의 비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PAI(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 중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되는 바이러스로 주로 닭, 오리 등 조류에 감염
아프리카돼지열병	ASF(African Swine Fever). 돼지와 멧돼지에만 감염되는 고치사성 바이러스성 질병
럼피스킨병	LSD(Lumpy Skin Disease). 럼피스킨병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소와 물소의 감염병으로 주로 모기, 진드기 등 흡혈곤충을 통해 전파
기종저	클로스트리디움 쇼베이(Clostridium chauvoei)라는 세균이 일으키는 급성 전염병. 기종저에 감염된 동물은 주로 근육 부위에 가스가 차는 증상이 나타남
닭전염성기관지염	닭에서 전염성이 높은 질병으로 계군에 널리 퍼져있는 바이러스성 질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PRRS. 돼지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번식 장애와 호흡기 증상을 유발
소해면상뇌증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에서 발생하는 전염성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광우병"이라고 불림
정형 BSE	BSE에 걸린 소로 만든 육골분 사료가 원인
비정형 BSE	8세 이상의 고령우에서 매우 낮은 비율로 자연적 발생. 사료와 관계 없음
지역화 인정 협정	가축전염병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국가의 방역규정과 국내-수출국가의 합의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국가 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 수입을 허용하는 것

축산업 이슈 분석: 국내외 질병 발생에 따른 축산업 영향 점검

과거 대비 가축질병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축산물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구제역 위기경보는 4월말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되었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는 6월 하향되었다. 한편, 2026년 초까지 한우, 돼지, 가금 등 모든 축종에서 가축질병이 발생하였으며, 해외에서도 가축질병이 발생하며 국내 수입금지 및 검역중단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이후 가축질병 관련 주요 보도자료는 매월 15건 이상 송출되며 높은 방역 경계감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2분기 들어 관련 언급은 1분기 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계절적 발생 위험이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전국 모든 돼지농장 대상 일제 검사(3회), 오염 우려 사료 폐기 및 자체 회수 등 방역 조치 이후 3월 16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가축질병 사례는 ① 2010~2011년 구제역(FMD), ② 2016~20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③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④ 2023년 럼피스킨병(LSD) 국내 최초 발생 등이 있다. 우선 2010년 발생한 구제역 당시 소 약 15만 마리, 돼지 약 332만 마리 등이 살처분됐는데, 밀집 사육 환경, 초기 백신 미접종 등으로 돼지의 살처분 규모가 컸었다. 대규모 살처분으로 돼지도체 평균(등외 제외) 가격은 2010년 kg당 3,891원에서 2011년 kg당 5,808원으로 급등했었다.

두번째로 2016년 11월 발생 후 2017년 4월까지 가금류 3,807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계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살처분 중 산란계가 약 66.1%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산란계 대규모 살처분으로 계란 수급이 불안해지자 2017년 1월 미국산 신선달걀을 처음으로 수입하기도 했다.

세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했을 때는 발생 지역 돼지의 살처분이 있었으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동제한 조치로 도매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나, 이후 제한 조치 해제와 함께 물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2023년 럼피스킨병이 국내에 최초로 발생했을 때에는 초기에는 전부 살처분을 했다. 이후 전국적인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과 감염 개체 중심의 선별적 살처분 도입으로 대응하였다. 살처분 물량이 전체 사육두수 대비 많지 않았고, 이동 제한 해제 이후 도축 물량 회복하면서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축산업 이슈 분석: 국내외 질병 발생에 따른 축산업 영향 점검

2025년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의 경우 1종 전염병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종 전염병에서는 기증저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3종 전염병에서는 닭전염성기관지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등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2026년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을 축종별로 보면 구제역의 경우 한우 농가에서 총 3건이 발생했다. 백신 정기 접종하고 있어 구제역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된다. 2010~2011년 구제역으로 대규모 살처분이 있었던 돼지의 경우 구제역 백신 접종 의무화, 검사 강화 등을 통해 구제역 백신항체양성률을 90%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26년 총 24건이 발생하며, 과거 대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발생지역 외에서도 신규 발생이 확인되고 있고 발생원인도 다양해지고 있다. 다만, 살처분 규모는 전체 사육마리수의 약 1.35%로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겨울철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대응이 필요하다. '25/'26 동절기 산란계 살처분은 전체 사육 마릿수의 약 14% 수준으로 가금류와 계란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 아일랜드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발생으로 소고기 검역이 중단되었다.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이나, 과거 미국산 소고기에서 발생한 광우병에 대한 경계감이 있는 점은 수입 재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구한다. 2003년 미국에서 정형 BSE가 발생하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며, 2008년 수입을 재개한 경험이 있다. 비정형 BSE에 대해서는 검역 강화 조치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한편 2025년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으나, 국내 수입량을 감안할 때 영향은 제한적이다.

돼지의 경우 2025년 스페인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해당 지역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있었다. 2023년 EU와 '지역화 인정 협약'을 체결하면서 질병 발생한 행정 구역만 수입을 금지하고 나머지 지역에서의 수입은 허용하고 있다. 2020년말 독일 ASF 발생으로 수입 금지 조치가 이어졌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중국에서는 2019~2020년 대유행 시기 도축물량 급감 및 가격 급등을 경험했으나, 지금은 과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브라질 가금농장에서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수입금지 조치가 있었으나,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 태국산/미국산 수입 물량 증가, 단기간 내 브라질산 수입 재개 등으로 가격이 재차 안정되었다. 미국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미국 내 계란 가격이 급등했었고, 포유류로 전이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관련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행히도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포유류에서 HPAI 발생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내외 질병 발생에 따른 축산업 영향 점검

I. 가축질병에 대한 이해

국내외에서 주요 가축질병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축산물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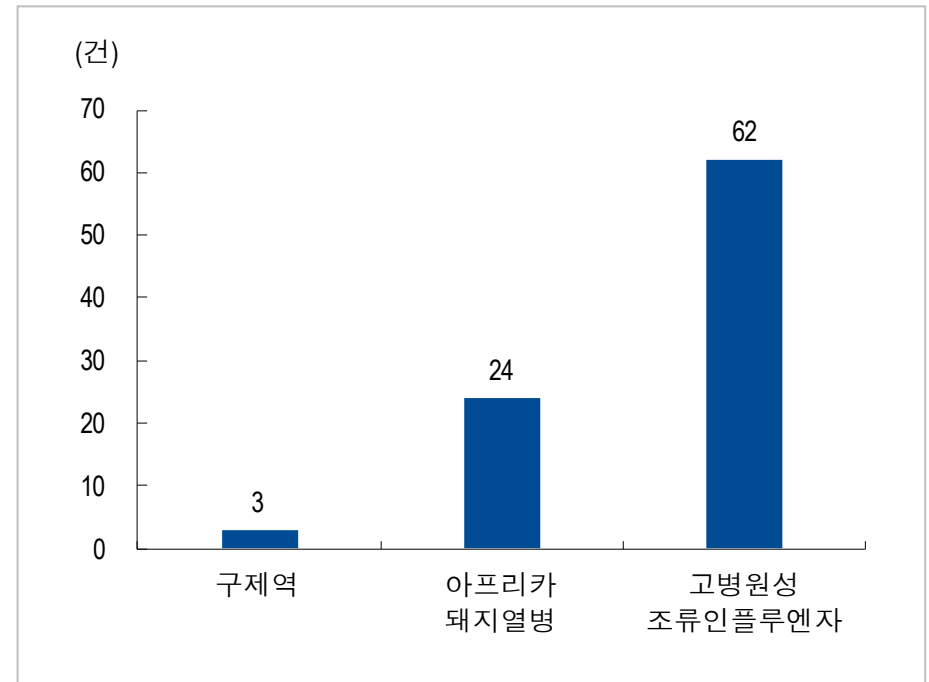
- 과거 대비 가축질병 발생 빈도 증가하면서 축산물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가축질병 '심각' 단계 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6월 1일자로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 '구제역'의 경우 4월 30일자로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 2026년 현재까지 총 3건의 구제역 발생
- 해외에서도 가축질병 발생하면서 수입금지 및 검역중단 조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질병 위기단계

가축질병 위기단계			
 조류 인플루엔자	관심	주의	심각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심	주의	심각
 구제역	관심	주의	심각
 렘피스킨	관심	주의	심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26년 축종별 가축질병 발생 건수



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동절기('25/'26시즌)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질병 관련 주요 보도자료(1)

2026년 1월 가축질병 관련 보도자료

일자	주요 내용
1/3	충북 증평 및 전남 나주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1/5	충북 충주 및 전북 익산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1/6	충북 옥천 메추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1/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한 달간 특별 방역관리 추진
1/9	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1/14	검역본부, 럽피스킨·블루팅 등 주요 해외 가축질병 국내 유입 징후 미확인
1/16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1/17	강원 강릉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1/19	강원 강릉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충남 천안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1/20	전남 곡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
1/21	충남 보령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발생 계열사 및 전국 육용종계 대상 방역관리 강화
1/23	경기 안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1/24	경기 포천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1/25	강릉·안성·포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전국 돼지농장 검사·점검·소독 등 강화된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
1/26	전남 영광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1/27	전남 영광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전국 돼지농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대책 추진
1/31	인천 강화 소 농장에서 올해 첫 구제역 발생에 따라 방역 강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26년 2월 가축질병 관련 보도자료(1)

일자	주요 내용
2/1	강릉 ASF 역학조사 중간결과, 인위적 유입 가능성 확인...방역관리 강화대책 이행 점검 강화
2/1	전남 영광(59차) 발생 농장의 역학 관련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인
2/3	선제적 예찰로 충남 보령 돼지농장 ASF 발생 확인·긴급 방역관리
2/4	경남 창녕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2/4	경남 창녕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강화된 방역조치 추진
2/6	충남 예산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확산방지에 총력
2/7	방역지역 예찰 과정에서 경기 포천 돼지농장 ASF 발생 확인·긴급 방역관리
2/7	경북 봉화 산란계 및 경남 고창 종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산란계·오리 방역관리 강화
2/8	경기 화성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2/8	경기 화성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설 대비 방역관리 철저
2/9	세종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대형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 특별 관리 강화
2/9	전남 나주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2/10	전남 나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 추진
2/11	경북 성주 육용오리 농장의 출하 전 확인 예찰검사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추가 발생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강화
2/12	충남 당진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2/12	검역본부, 올해 구제역 예방접종 더 촘촘히 관리한다
2/12	범정부 합동 설 연휴 가축전염병 총력 대응
2/12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출하 돼지 검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대책 시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질병 관련 주요 보도자료(2)

2026년 2월 가축질병 관련 보도자료(2)

일자	주요 내용
2/13	전북 정읍, 경북 김천, 충남 홍성 돼지농장 ASF 발생
2/13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 중간결과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 시행
2/13	전북 정읍, 경북 김천, 충남 홍성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방역 총력 대응
2/14	경남 창녕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2/17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2/19	경기 화성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경북 봉화 및 전남 구례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2/19	경기 평택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2/20	경기 고양시 소재 소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
2/20	경기 고양 한우농장 구제역, 강원 철원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2/21	전남 무안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2/23	경남 의령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2/24	경남 의령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경북 성주 및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2/24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배합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2/25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
2/26	전남 구례 육용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2/26	경남 합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2/27	'26년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유전자 분석 결과와 확산 차단조치 강화
2/28	경기 고양시 소재 소 농장에서 구제역 추가 발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26년 3월 가축질병 관련 보도자료

일자	주요 내용
3/1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3/3	'구제역 백신 국산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 낸다
3/4	경기 연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3/4	경기 연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경북 봉화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3/7	경기 포천 육용종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발생 계열사 및 전국 육용종계 방역관리 강화
3/9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다수 방역 미흡사항 확인, 보상금 감액 등 엄정 조치
3/10	충남 아산 메추리 농장 및 전북 김제 육용종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관리 총력 대응
3/13	경기 포천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 방역대책 추진
3/16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강화
3/17	경남 산청, 전남 함평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에 따라 전국 돼지농장 방역관리 강화
3/19	전남 무안 육용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 대응
3/21	전북 장수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발생 시·군 집중관리를 통해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
3/26	칠레 가금농장 고병원성 SI 발생으로 칠레산 가금육 등 수입금지
3/30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강화
3/31	럼피스킨병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하향, 가축폐기물처리업 신설 등 방역관리 효율성 강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질병 관련 주요 보도자료(3)

- 2분기 들어서는 가축질병 관련 언급은 1분기 대비 크게 줄어드는 모습
- 겨울철 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시기적으로 발생 위험 감소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전국 모든 돼지농장 대상 일제 검사(3회), 오염 우려 사료 폐기·자체 회수 등을 통해 3월 16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음

2026년 4월과 5월 가축질병 관련 보도자료

일자	주요 내용
4/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기간 4월 15일까지 연장, 강화된 방역 조치 지속
4/1	전북 익산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발생 시·군 중심으로 집중관리를 통해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
4/9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 출하 전 예찰검사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발생 지역 및 계열사 관리 강화를 통해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
4/13	아일랜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따른 아일랜드산 쇠고기 검역 중단 조치
4/1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4월 15일로 마무리, 위험지역 중심으로 방역조치는 지속 유지
4/30	구제역 방역이 평시 체계로 전환됩니다
5/18	2025년 국내 반려동물과 포유류 가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없어
5/19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원인이 다양해져, 발생원인별 선제적 방역 관리 강화
6/1	6월 1일자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여 상시 방역활동 추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26년 언론보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대응자료 주요 내용

주요 내용
<p>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 계란 수급·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계란 특란 한 판(30구) 소비자 가격이 8,100원을 기록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1월 19일 기준 산란계 살처분 마릿수는 443만 수이며, 살처분된 산란계의 월령별 계란 생산량을 감안한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약 4,915만 대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p>가축 전염병 확산에 대비,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가격 흐름은 특정일자가 아닌 일정기간 전국 평균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며, 소 사육마릿수 감소 추세 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할인판매 등을 지속하겠습니다 - 계란 30구짜리 한 판이 8,000원에 육박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성수기 대비 신선란 및 육계 종란 수입 검토 등 가격 안정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 돼지고기는 예상 출하두수 감안시 수급에 문제가 없으며,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할당관세 검토 및 자조금 할인 판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p>가축 질병 및 수요 증가에 대비,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3/9)</p>
<p>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과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3/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 가축전염병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축산물 가격이 다소 높은 이유를 방역 허점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정부는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을 관리

- 전염병이란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성 미생물이 사람이나 동물에 침입, 증식하여 일어나는 질병
- 가축전염병은 전파력, 병원성, 국내발생 여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구분하여 관리
- 전염병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주로 병원체(pathogen), 숙주(host), 환경(environment)의 세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발생

가축전염병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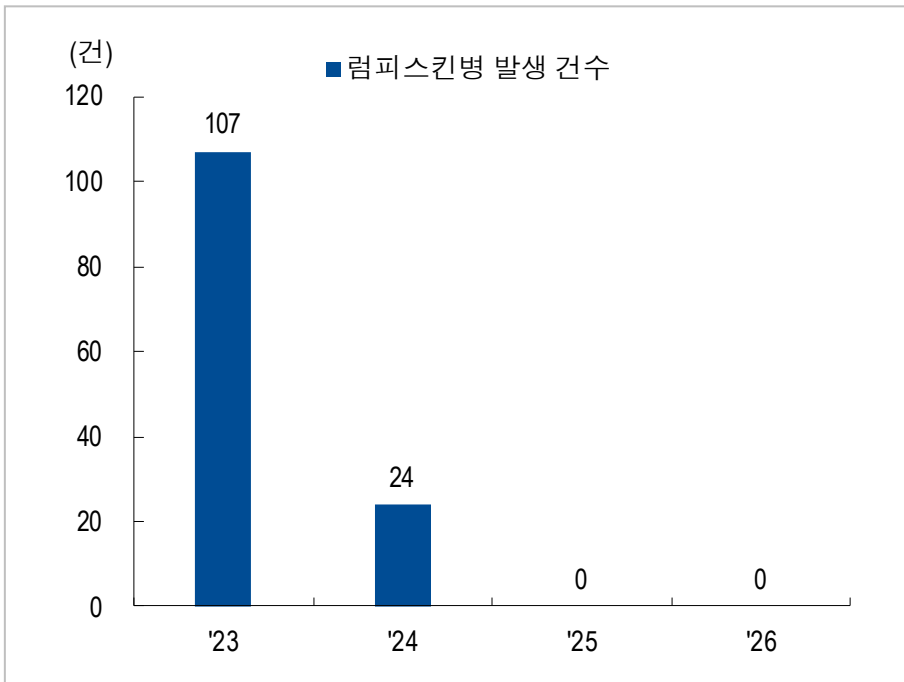
구분	가축전염병 종류
제1종 가축전염병	동물에서 매우 치명적이고 전파가 빠르며, 사회적, 경제적, 공중위생상 피해가 큰 전염병 우역, 우폐역, 구제역, 가성우역, 블루팅병, 리프트계곡열, 양두,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 뉴캐슬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 기종저,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소해면상뇌증, 큐열, 럼피스킨병(‘26.10월 시행),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 구역, 말전염성자궁염, 동부말뇌염,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병아리흰설사병), 가금티푸스, 광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타이레리아병, 바베시아병, 아나플라즈마, 오리바이러스성간염, 오리바이러스성장염, 마웨스트나일열, 돼지인플루엔자, 낭충봉아부패병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 소전염성비기관염, 소류코시스, 소렙토스피라병, 돼지전염성위장염, 돼지단독,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성설사, 돼지위축성비염, 닭뇌척수염, 닭전염성후두기관염, 닭전염성기관지염, 마랙병, 닭전염성F낭병, 토끼출혈병, 토끼점액종증, 야토병

주: 럼피스킨병은 2026년 3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공포(6개월 후 시행 예정)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럼피스킨병 가축전염병 등급 조정: 1종 → 2종

- 기존 제1종 가축전염병이었던 럼피스킨병을 제2종으로 조정(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2026년 10월 시행)
- 폐사율이 낮고 백신 접종 및 매개체 방제로 감염 차단이 가능하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할 때 토착화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 평가를 반영
- 선별적 가축처분 실시, 일시 이동중지 대상에서 제외, 발생 농장과 역학농장에 대해서만 이동제한 조치가 적용되어 방역관리의 효율성 강화

연도별 럼피스킨병 발생 건수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가축전염병 종류별 방역조치 비교

	1종	2종	3종
역학조사, 정밀검사, 임상진단 후 감염 또는 감염의식 농가 및 인접농가의 가축 - 격리, 억류, 이동제한		좌동	좌동
가축소유자, 동거가족, 고용인 - 이동제한, 소독조치		해당없음	해당없음
감염농가를 중심으로 일정범위 내 차량, 사람, 동물 - 교통차단, 출입통제, 소독조치		좌동	해당없음
사육시설 폐쇄명령		좌동	좌동
격리, 억류, 이동제한명령 위반행위에 가담한 가축운송업자, 도축업 영업자 - 행정처분		좌동	좌동
살처분 명령		좌동	해당없음
도태권고		좌동	해당없음

자료: 농협중앙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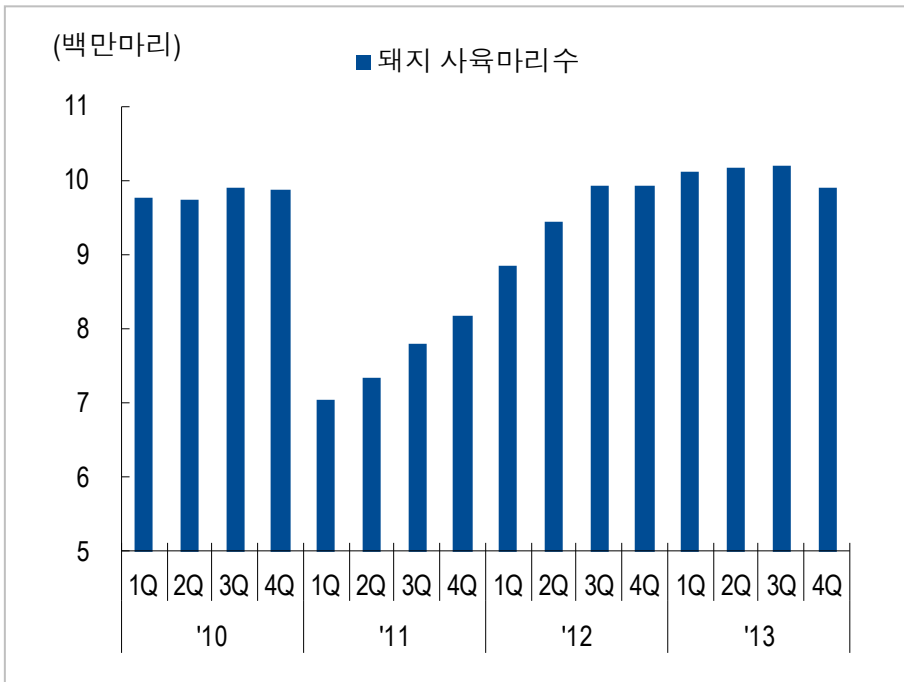
국내외 질병 발생에 따른 축산업 영향 점검

II. 국내 발생 동향 및 영향

국내 대표적인 가축질병 사례: ① 2010~2011년 구제역(F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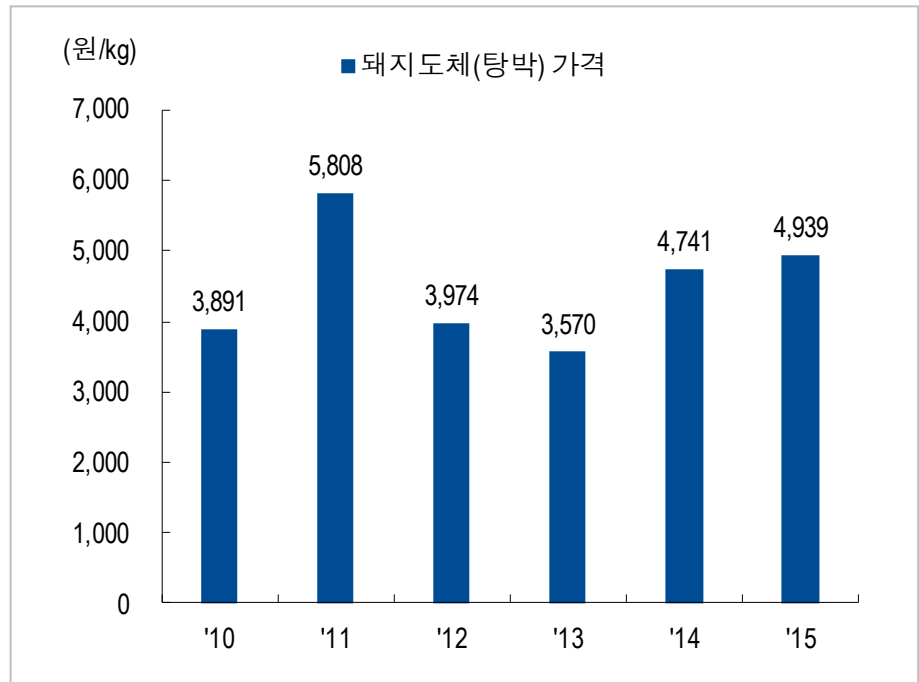
-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2011년 4월까지 제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로 확산
- 소 약 15만 마리, 돼지 약 332만 마리 등이 살처분되며 가격 급등을 야기. 밀집 사육 환경, 초기 백신 미접종 등으로 돼지의 살처분 규모가 컸음
- 구제역 백신 접종 의무화, 검사 강화 등을 통해 국내 돼지의 구제역 백신항체양성률 90%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22) 92.5% → ('23) 93.1% → ('24) 90.3% → ('25) 92.8%) 하고 있음

분기별 돼지 사육마리수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연도별 돼지도체 평균(등외제외)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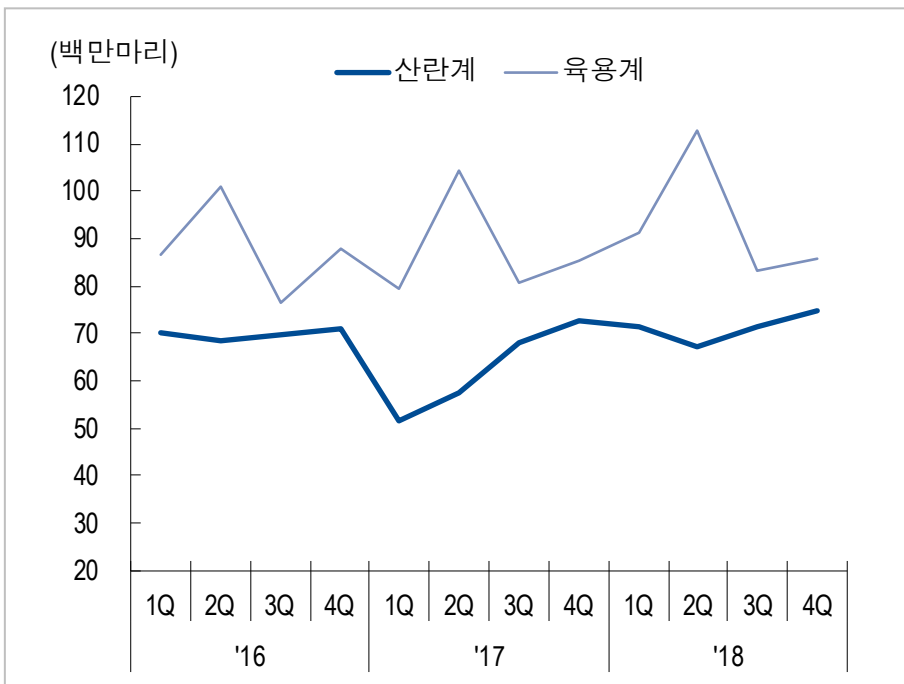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② 2016~20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 2016년 11월 발생 이후 2017년 4월까지 전국 50개 시·군 383건 발생. 가금류 3,807만마리가 살처분되었으며, 이 중 산란계가 약 66.1% 차지
- 산란계 대규모 살처분으로 계란 수급이 불안해지자 2017년 1월 미국산 신선달걀을 처음으로 수입

닭 용도별(산란계, 육용계) 사육 마리수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계란(특란, 중품) 가격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물통공사 농수산물 유통정보 시스템(KAMI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③-1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최초로 발생

-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 파주·김포시 관내 발생농장 반경 3km 밖의 돼지 전량을 선 구매 후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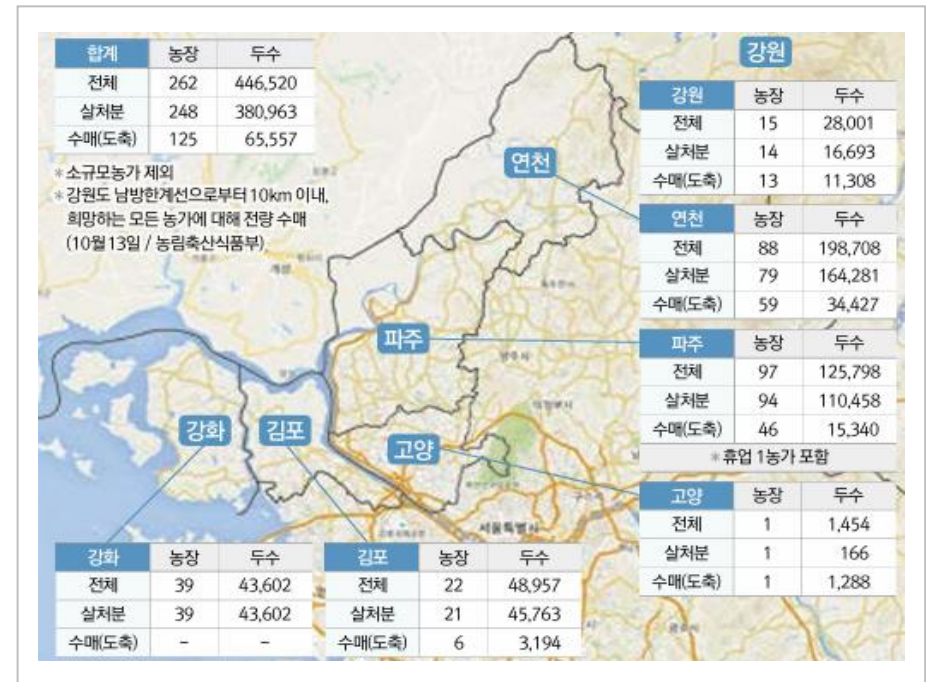
2019년 9월, 경기 파주 돼지농장에서 ASF 최초 발생

〈주요내용〉

- ◆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 (신고접수) 해당 농장에서는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함에 따라 9.16일 18시경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 (확진판정) 시료를 채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9.17일 6시30분경 ASF로 확진
- (초동방역) 신고접수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출입통제, 소독·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 시행 중
- ◆ 9.17일 오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급변 ASF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을 심의·확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19년 ASF 발생 이후 구매 및 살처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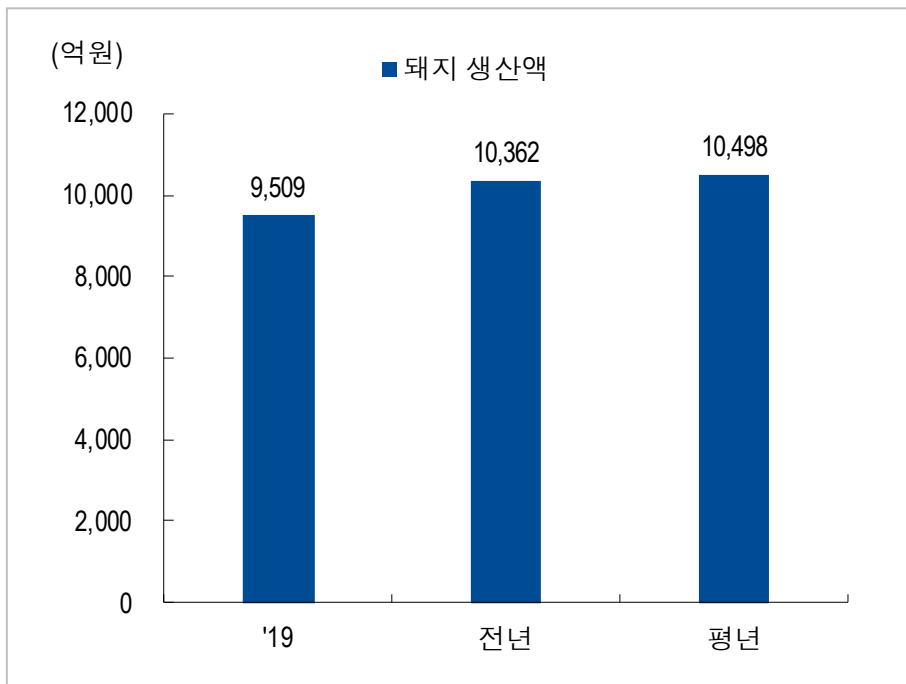


자료: 파주시(파주ASF백서, 2019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과 극복),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③-2 ASF 발생에 따른 국내 돼지고기 수급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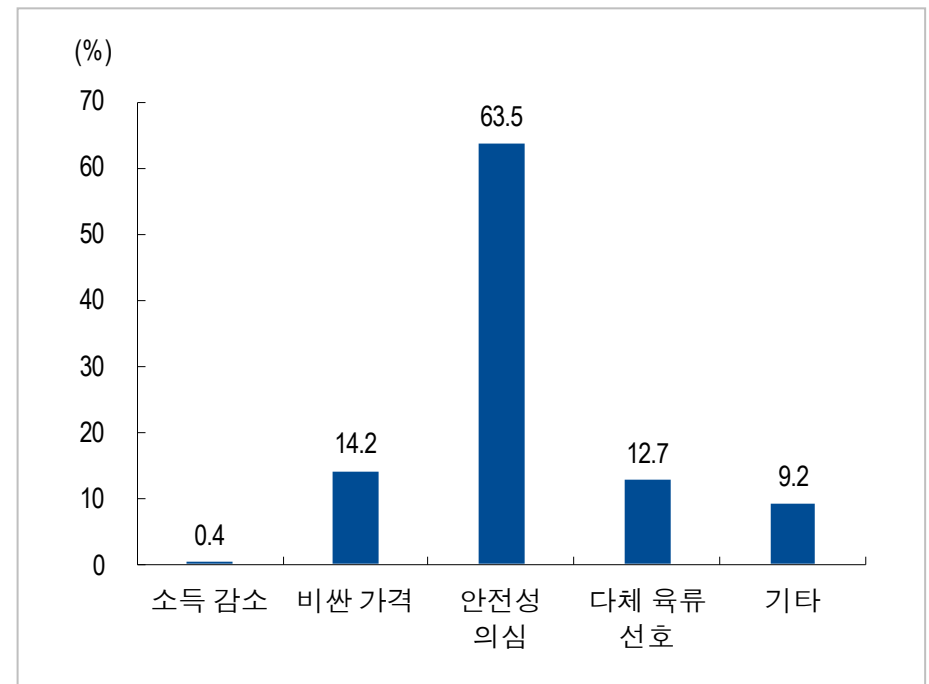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19~'21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 분석(방역 백서))에 따르면, ASF 발생 이후 도매가격 하락 영향으로 돼지 생산액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감소. 도매가격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하나, 이동제한 조치 해제 이후 물량 증가하며 가격 하락
- 2019년 10월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량은 ASF 발생 이전 대비 약 14.6% 감소. 감소의 원인으로 돼지고기 안전성 의심을 가장 높게 응답

2019년 ASF에 따른 돼지 생산액 영향



주1: ASF 기간(9월 17일~11월 16일) 기준이며, 돼지 생산액은 산지가격과 등급판정 마릿수로 계산
 주2: 2019년 산지가격 마리당 약 30.2만원, 등급판정 약 314.9만마리
 주3: 전년 산지가격은 마리당 약 33.3만원, 등급판정 약 311.6만마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19년 10월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량 감소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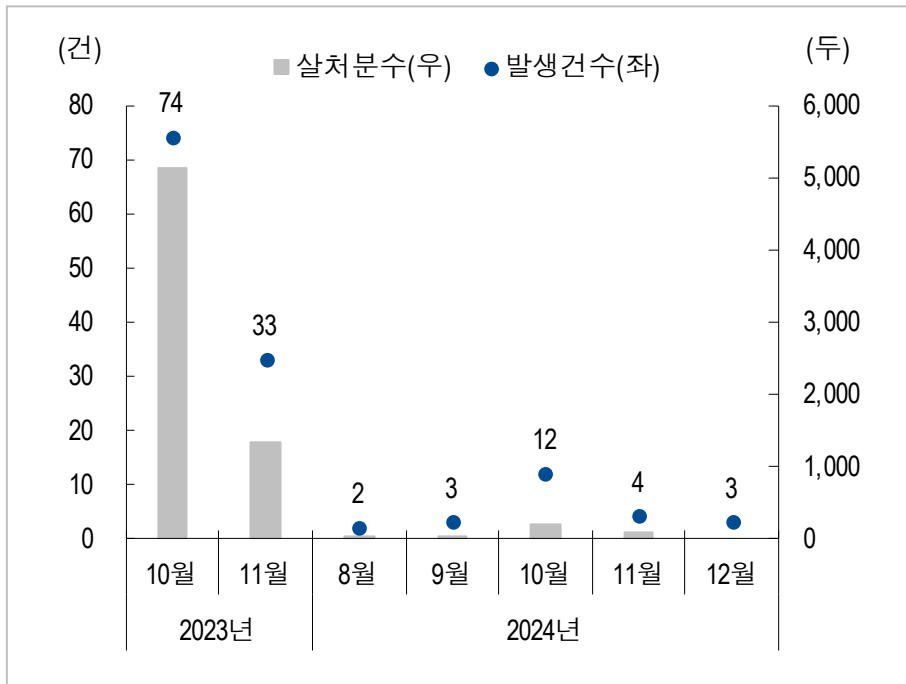


주: 2019년 10월 17일 532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조사 진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④ 2023년 럼피스킨병(LSD) 국내 최초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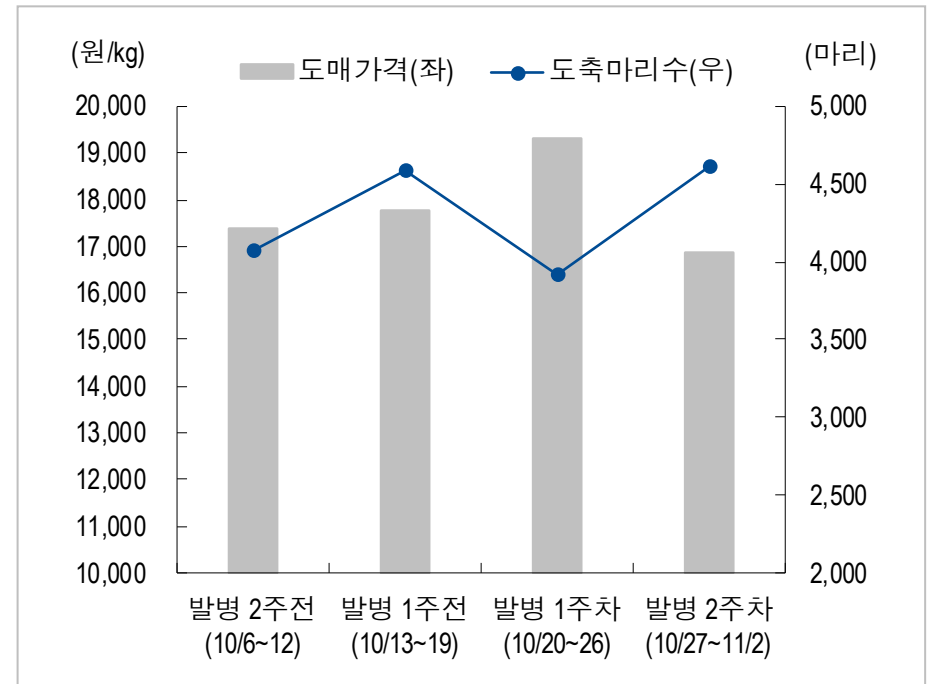
- 2023년 10월 충남 서산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 최초 발생하였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 2023년 6,455두, 2024년 304두 살처분 실시
- 전국적인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감염 개체 중심 선별적 살처분 도입되면서 살처분 마릿수 감소. 2023년과 2024년 총 살처분 규모는 전체 사육두수의 약 0.18%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이동 제한 조치 영향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나, 이후 도축 물량 회복하면서 가격 안정세를 보였음

럼피스킨병 발생건수 및 살처분 마릿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럼피스킨병 발병 전후 도매가격 및 도축마릿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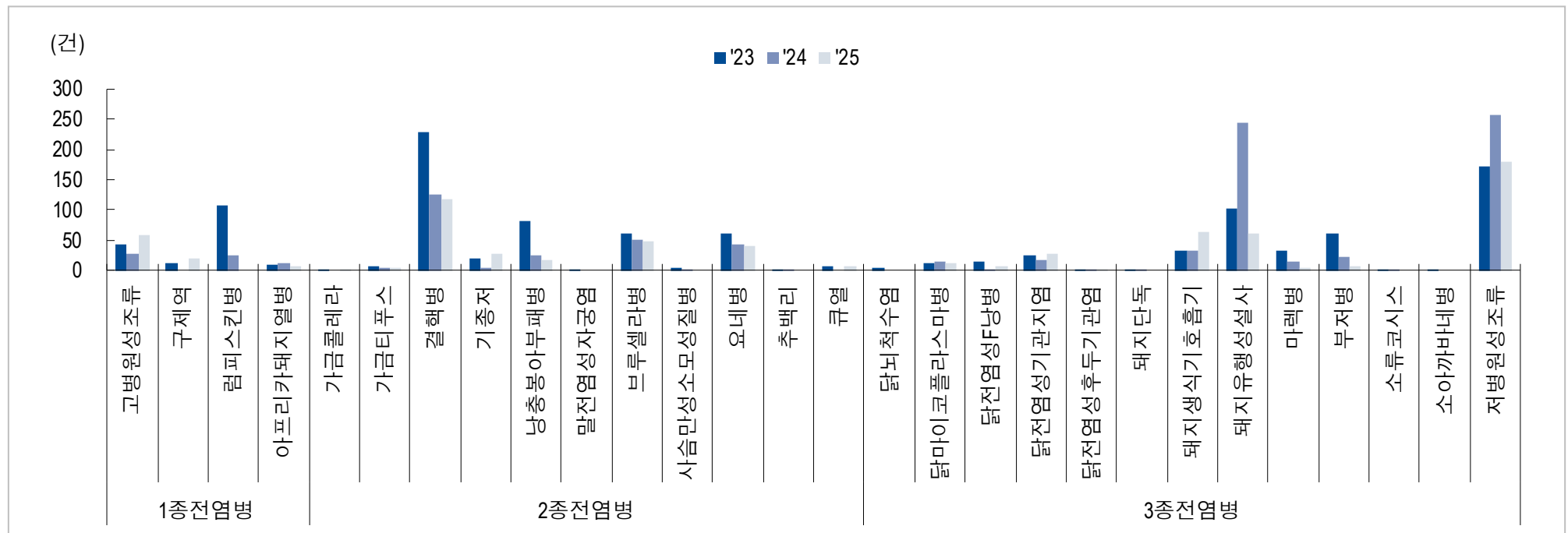


주: 해당 주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평균치 기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25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발생 증가

- 2025년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의 경우 1종 전염병에서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금)이, 2종 전염병에서는 기종저(소)가 전년 대비 증가
- 3종 전염병에서는 닭전염성기관지염(닭),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돼지) 등이 전년 대비 증가

최근 3년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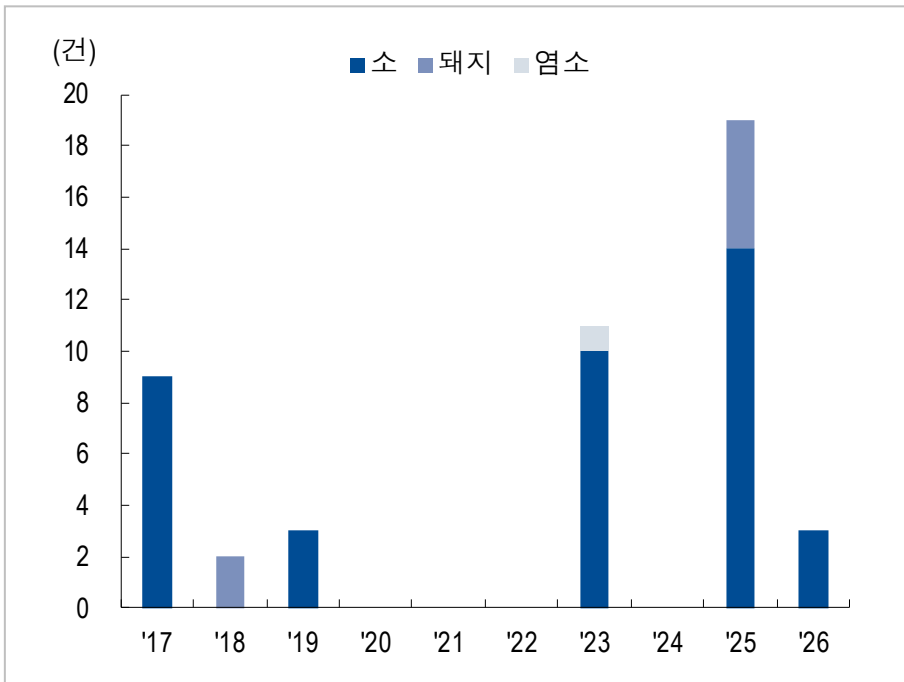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구제역(FMD): ① 2026년 3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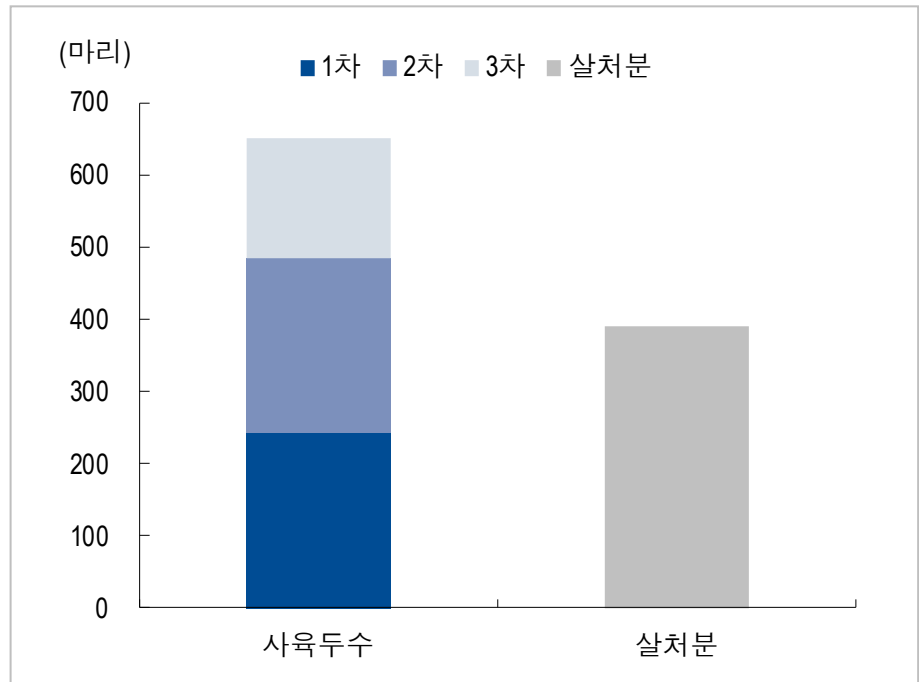
- 2026년 구제역은 1월 인천 강화군 한우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2월 경기 고양 한우 농장에서 2건 발생
- 2011년부터 전국 우제류를 대상으로 O형·A형 백신을 정기 접종하고 있어 구제역(FMD, Foot-and-Mouth Disease)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

연도별 구제역 발생 현황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구제역 발생농가 사육두수 및 살처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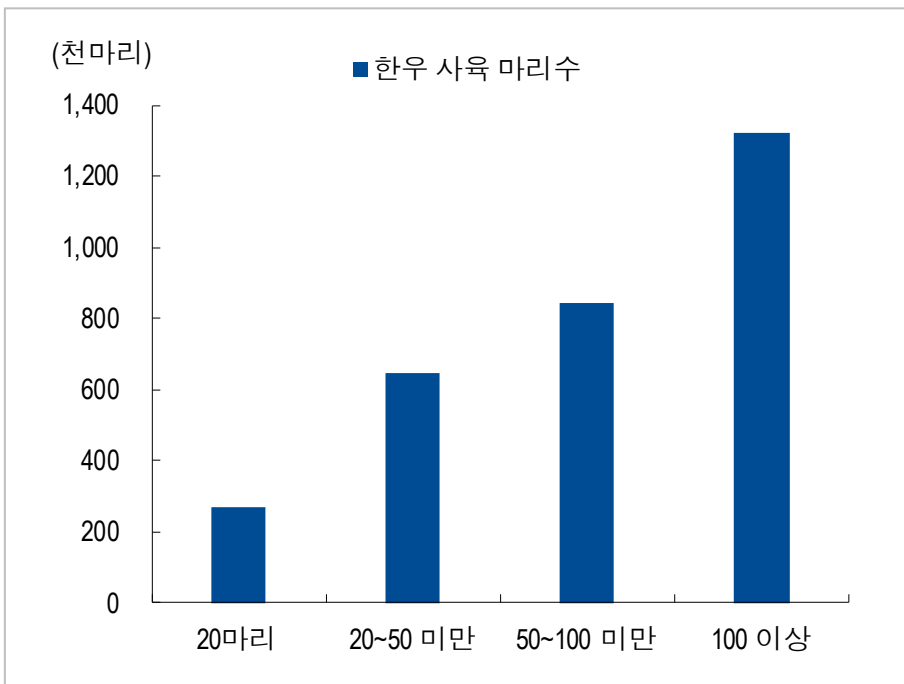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② 구제역 살처분은 한우 전체 사육마리수의 약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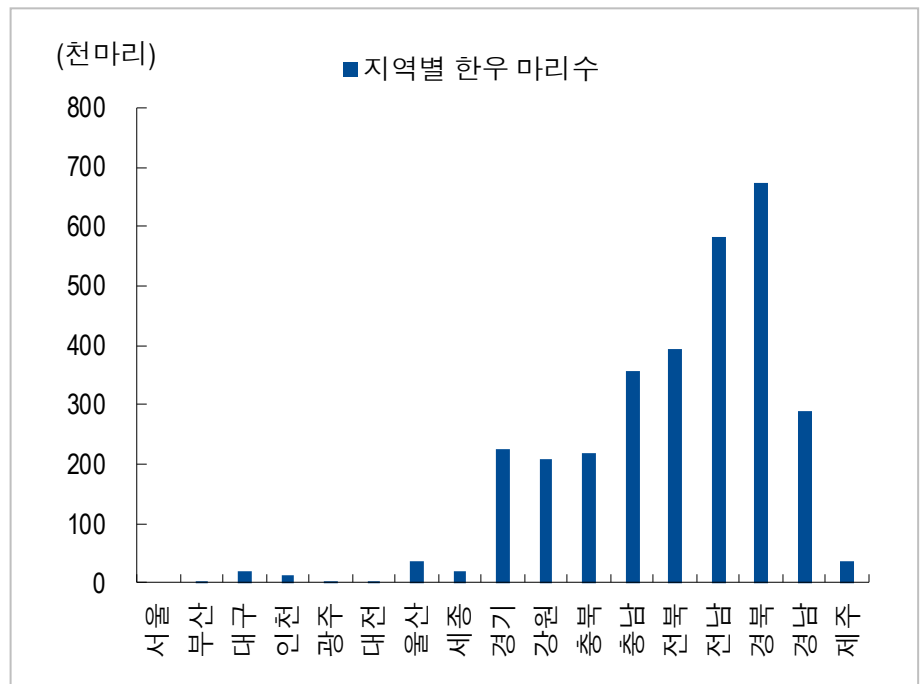
- 전체 발행 규모 대비 구제역에 따른 살처분 비중은 약 0.01%로 공급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 인천 강화와 경기 고양 외 다른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 전국의 소·염소 대상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하는 등 방역 대책 강화 등을 통해 영향 최소화

한우 사육규모별 사육 마리수 현황



주: 2026년 1분기 기준
 자료: 국가통계포털,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지역별 한우 사육 마리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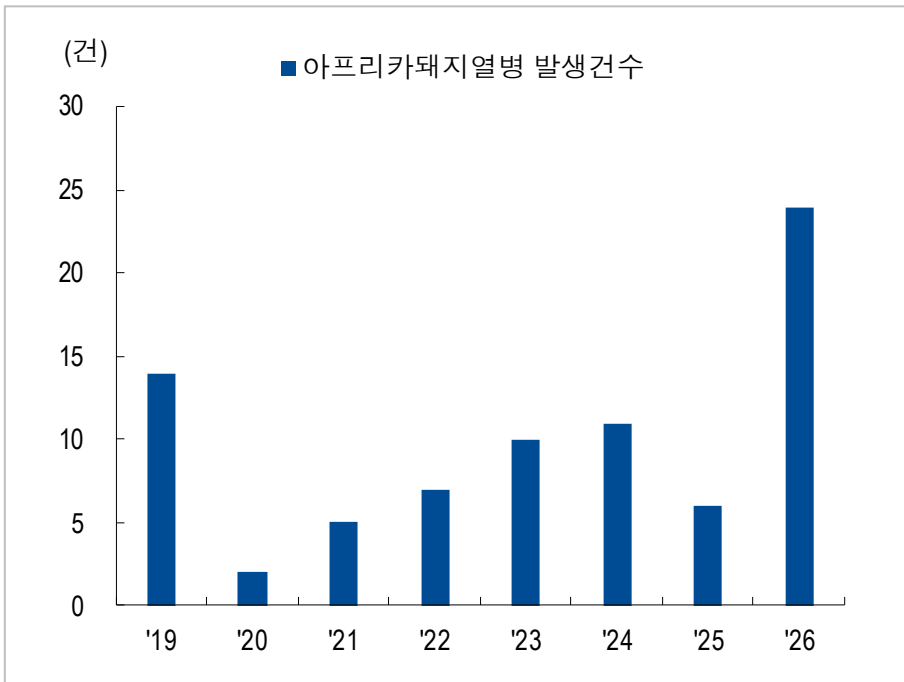


주: 2026년 1분기 기준
 자료: 국가통계포털,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① 2026년 24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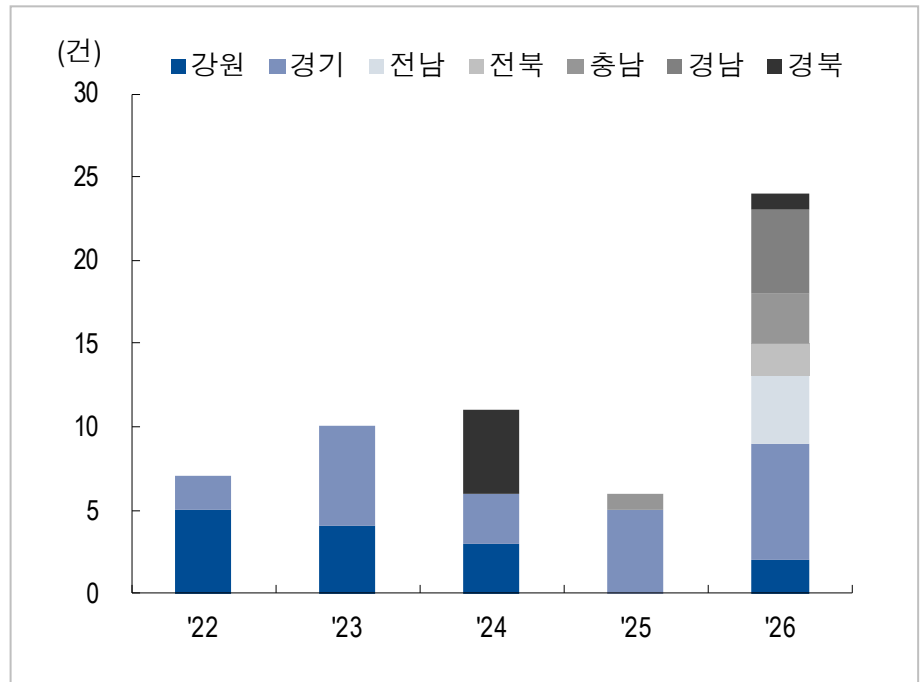
- 2026년 1월 16일 강릉 소재 양돈농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
- 과거 대비 발생건수 증가했고, 기존 발생지역인 경기·강원·경북지역 외에 충남·전북·전남·경남 지역에서 신규 발생 확인

연도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지역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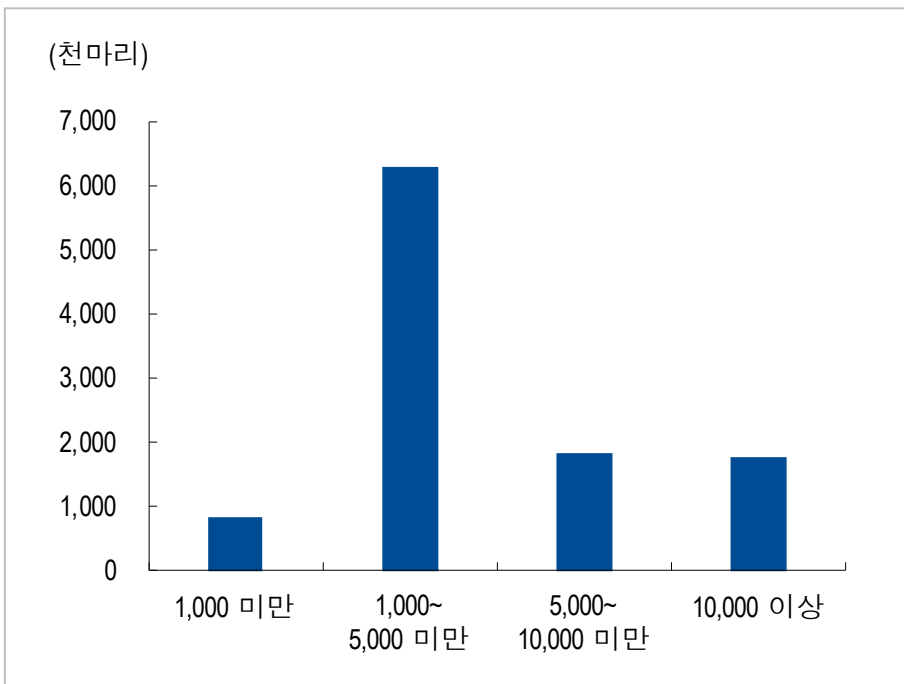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②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은 돼지 전체 사육마리수의 약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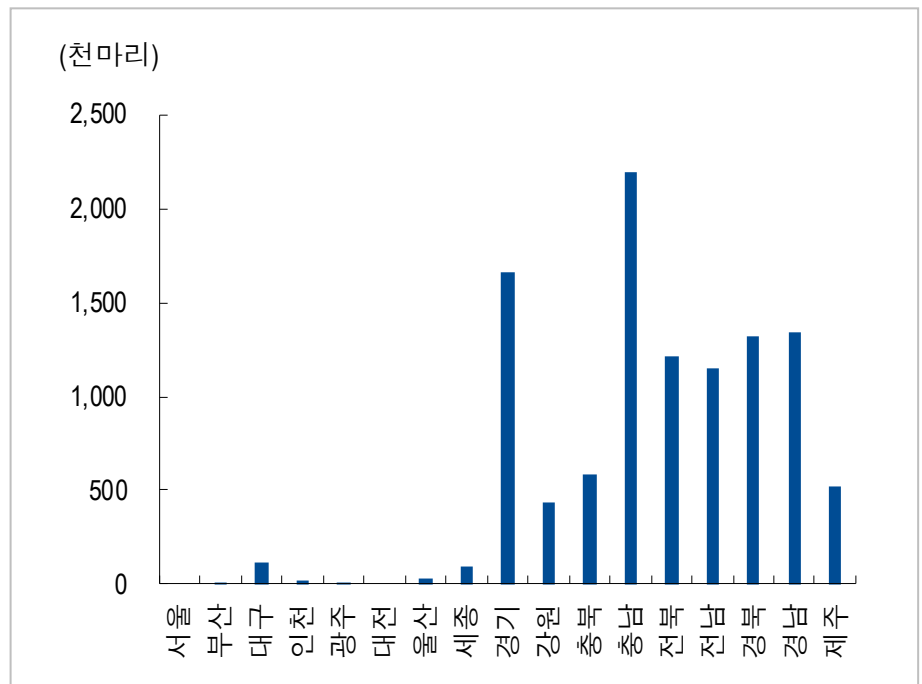
- 전체 사육 마리수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살처분 비중은 약 1.35%로 공급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 전국 모든 돼지농장 대상 일제 검사(3회),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대책 등이 이뤄졌고, 4월 22일 전국 ASF 방역지역 이동제한 조치 해제
- 돼지 사육의 약 20.5%가 분포되어 있는 충남과 10% 이상 분포되어 있는 전북·전남·경남에서의 신규 ASF 발생은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 요인

돼지 사육규모별 사육 마리수 현황



주: 2026년 1분기 기준
 자료: 국가통계포털,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지역별 돼지 사육 마리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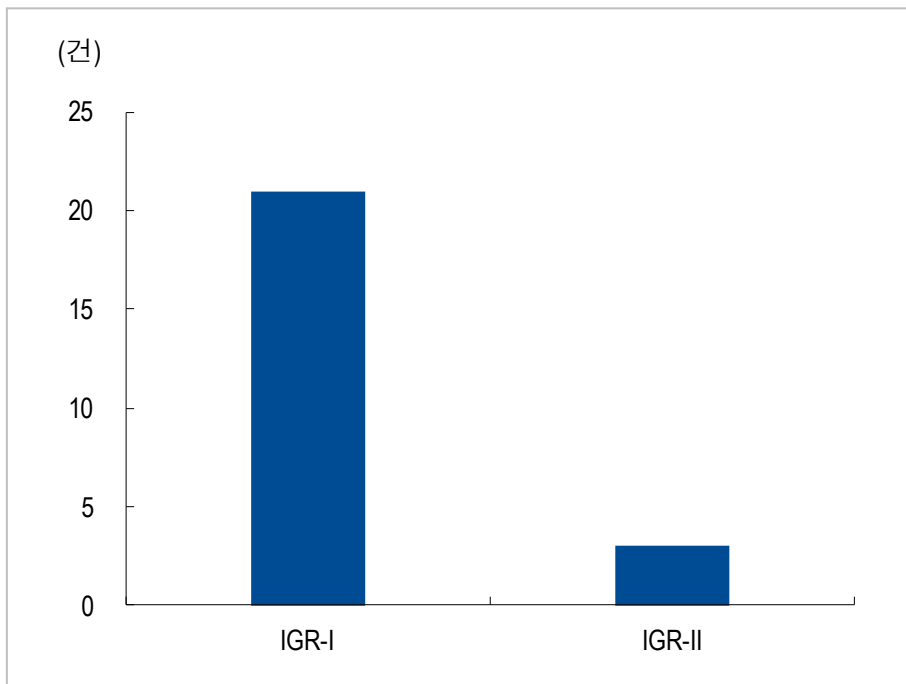


주: 2026년 1분기 기준
 자료: 국가통계포털,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③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원인 다양하게 확대

- 2026년 발생한 2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중 21건이 해외 발생 유형(IGR-I)으로 확인
- 사료 원료(돼지 혈장단백질), 불법 축산물 반입·유통, 야생멧돼지를 통한 오염원 유입 등이 주요 발생 원인
- 사료 원료의 경우 2025년 11월 충남 당진 발생농장 확진 이전에 감염추정 돼지가 출하되었고, 해당 도축장에서 수집된 도축 부산물(혈액)이 사료 원료 제조업체로 공급된 후 해당 원료가 포함된 사료가 농가에 사용되면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

2026년 ASF 발생농장 전장 유전체 분석 결과



주: IGR(Intergenic Region)은 DNA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않는 유전자간 공간을 의미하며, ASF 유전체 분석 시 두 유전자 사이 10개 임기서열의 반복 횟수에 따라 유형 분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하는 배합사료에서 ASF 유전자 검출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배합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 강화**

- ASF 유전자 검출 사료 폐기,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사료 사용중지 권고,
전국 양돈농장 일제검사 기간 연장 등 방역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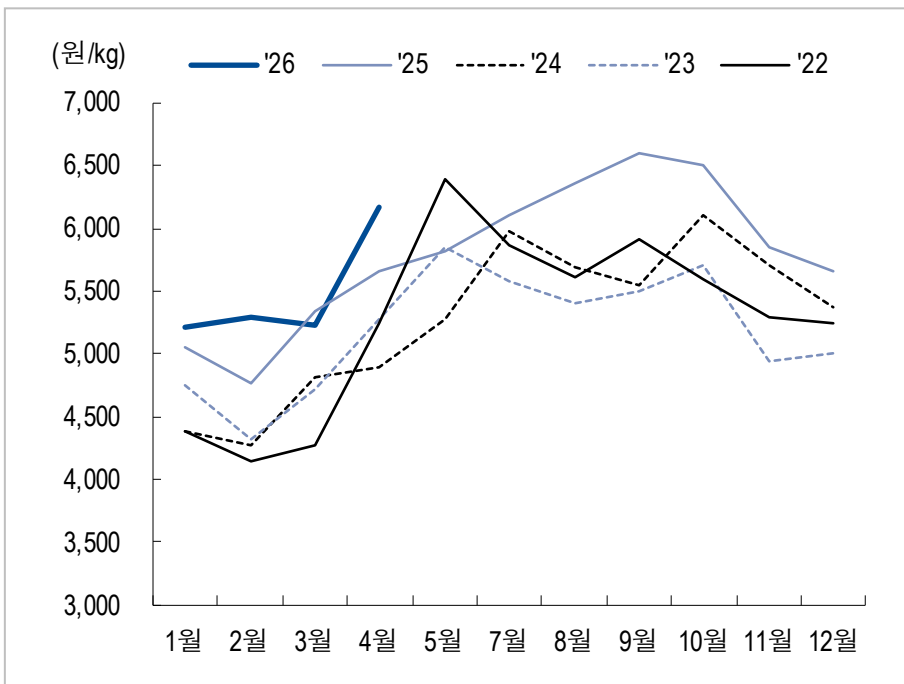
- 전국 돼지 도축장(64개소)에서 출하되는 돼지에 대해 검사를 실시
- 돼지 혈액 원료를 공급하는 도축장(36개소) 혈액탱크에 대해서도 ASF 검사체계를 구축하여 3월 12일부터 매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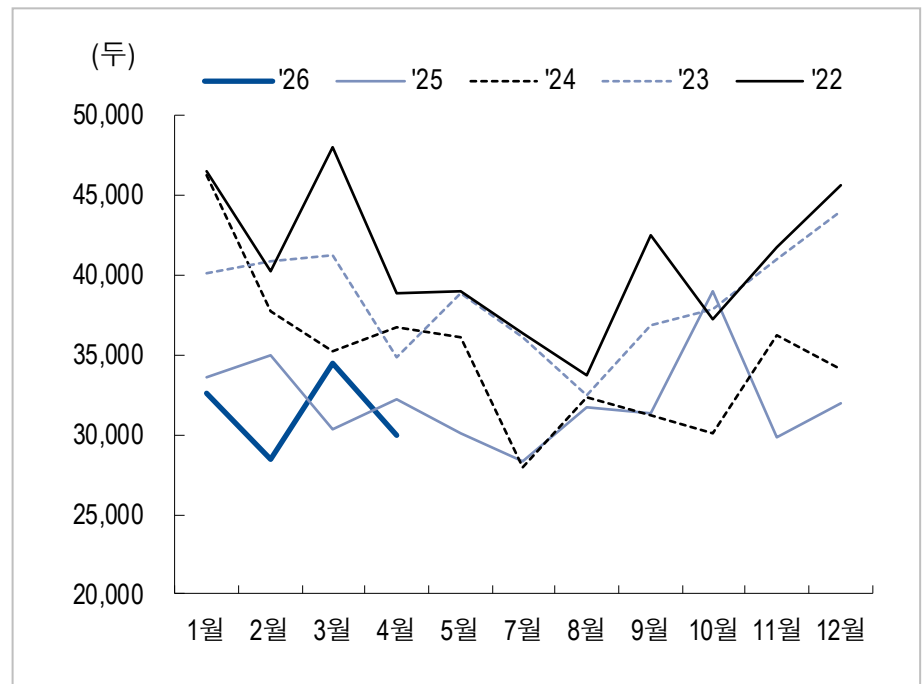
④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도매가격 영향은 제한적

- 2026년 발생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월 4건, 2월 17건, 3월 3건 등 2월에 발생 규모가 많았음
- 3월 경락두수 물량이 증가하면서 3월 도매가격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 4월 들어 경락두수가 재차 감소하면서 돼지 도매가격은 크게 상승. 4월 기준 돼지 도매가격은 전년동월대비 9.3% 증가

돼지 도매가격(탕박 기준) 월별 추이



돼지 경락두수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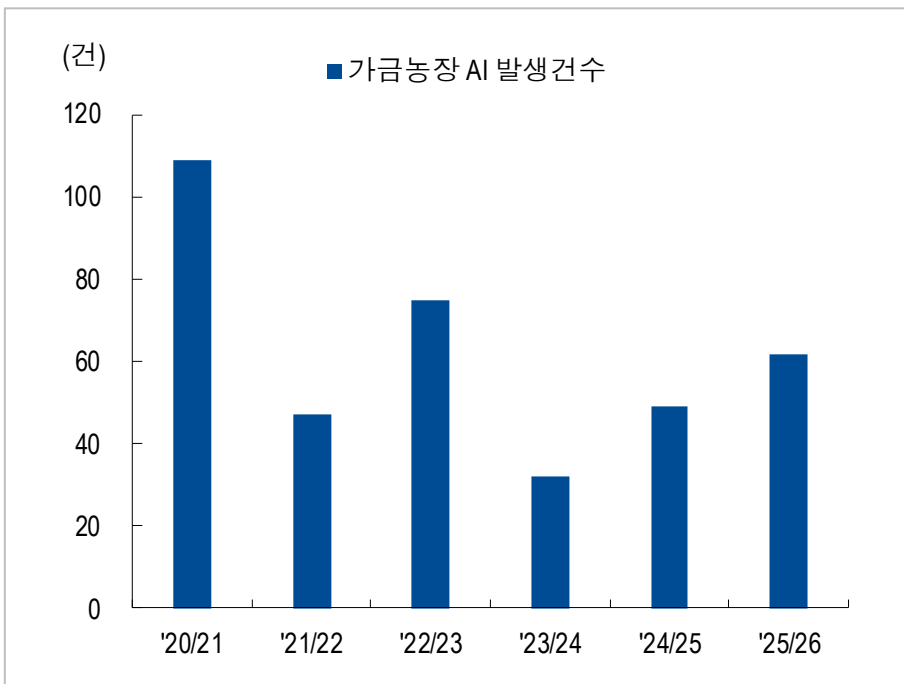
주: 제주 및 등외 제외 기준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① '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 62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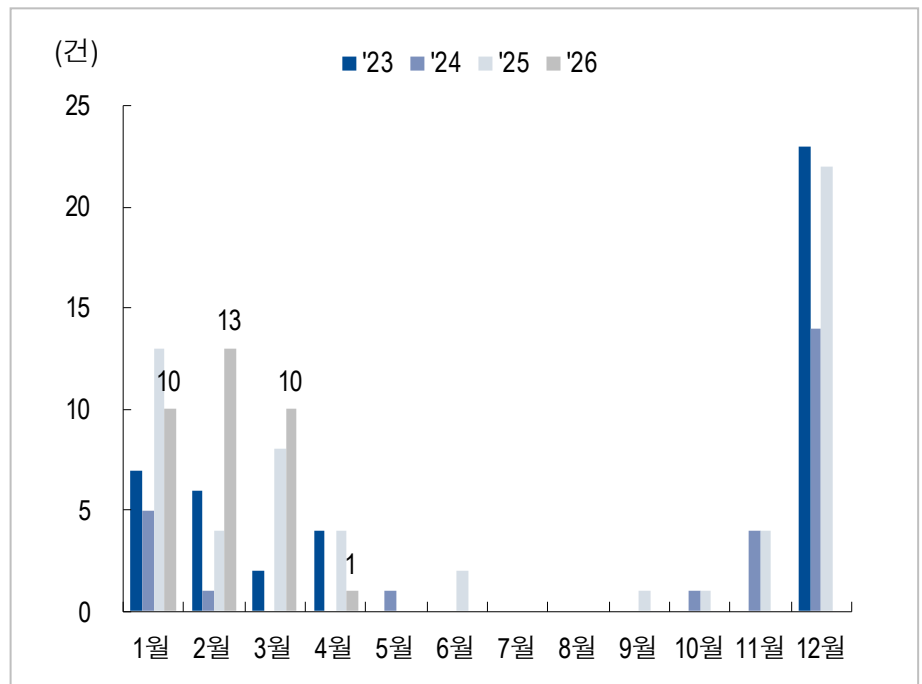
- '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62건, 야생조류에서 6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 '23/'24시즌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 증가
- 빨라지는 발생시기, 검출지역 확대, 다양해지는 바이러스 유형, 높아진 감염력 등을 감안할 때 동계시즌 지속적인 모니터링 요인

동절기 가금농장 AI 발생건수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연도별/월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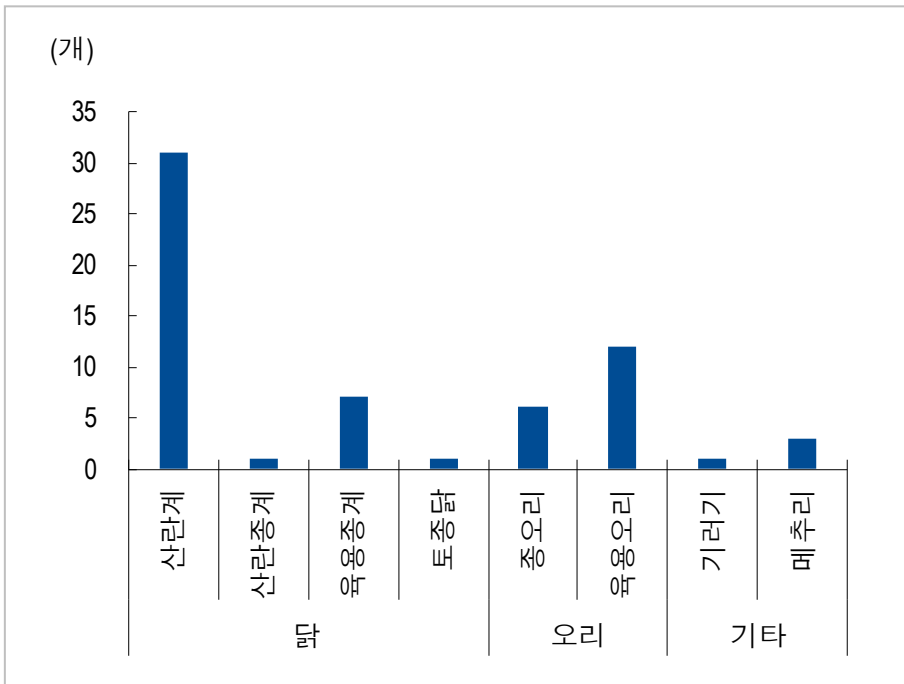
주: '25/'26시즌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② 동절기 산란계 살처분은 전체의 약 14%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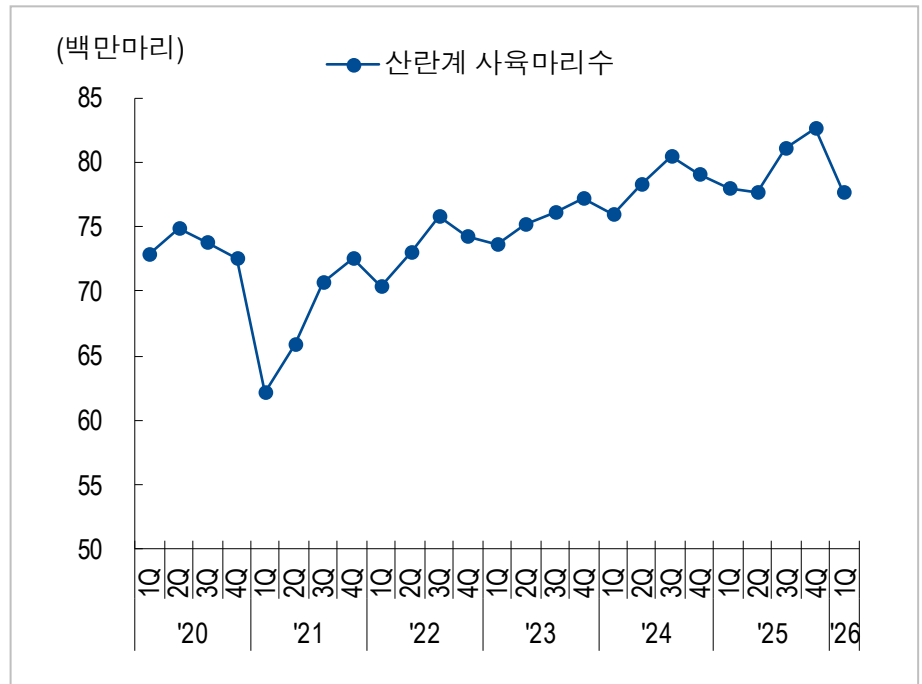
- 동절기 HPAI 발생으로 산란계 사육 마리수의 약 14% 수준이 살처분되어 생산량 감소되면서 타이트한 공급 상황 야기
- 2026년 1분기 기준 산란계 사육마리수는 약 7,775만 마리로 전기 대비 약 494만 마리 감소. 2021년 1분기 약 1,047만 마리 감소 이후 분기 기준 가장 많은 감소를 기록

'25/26시즌 축종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산란계 사육마리수 분기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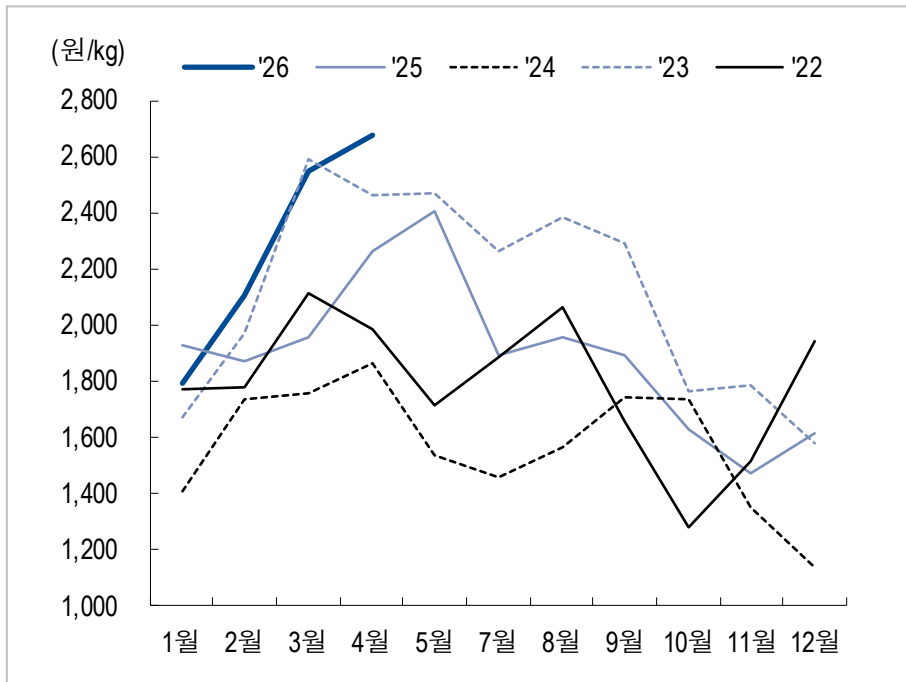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③ 가축전염병에 따라 가금류·계란 가격은 직접적으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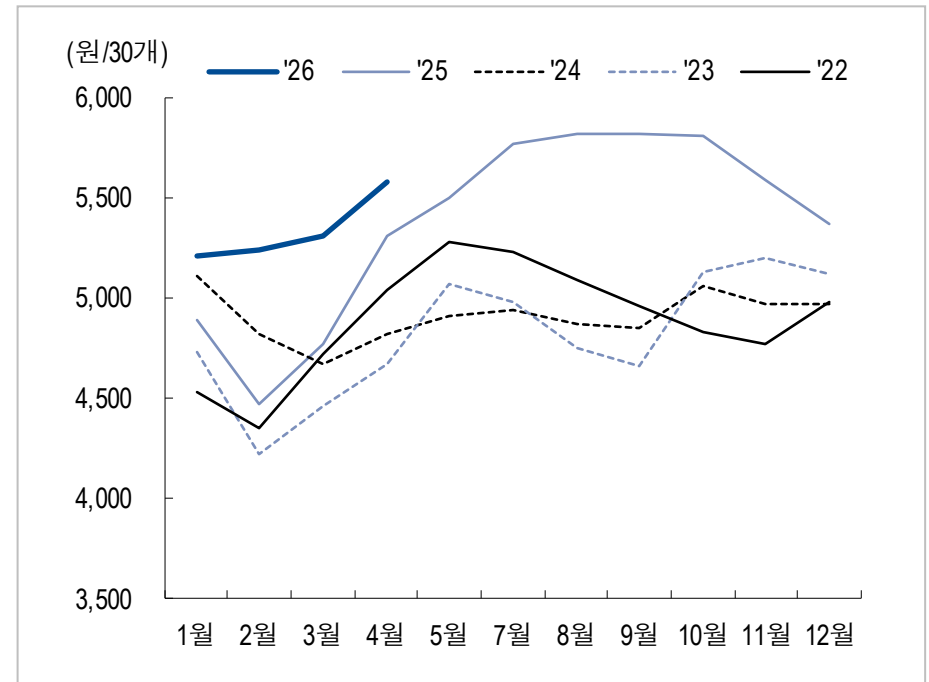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국내 계란 수급상황 저하되면서 가금류 및 계란 가격이 과거 대비 높은 상황
- 육계 생계유통가격(대, 1.6kg 이상)은 3월과 4월 kg당 2,550원, 2,677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각각 30.6%, 18.2% 상승
- 계란(특란) 산지가격도 3월과 4월 30개당 5,316원, 5,580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각각 11.4%, 5.0% 상승

육계 생계유통 월 평균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계란(특란) 산지가격 월 평균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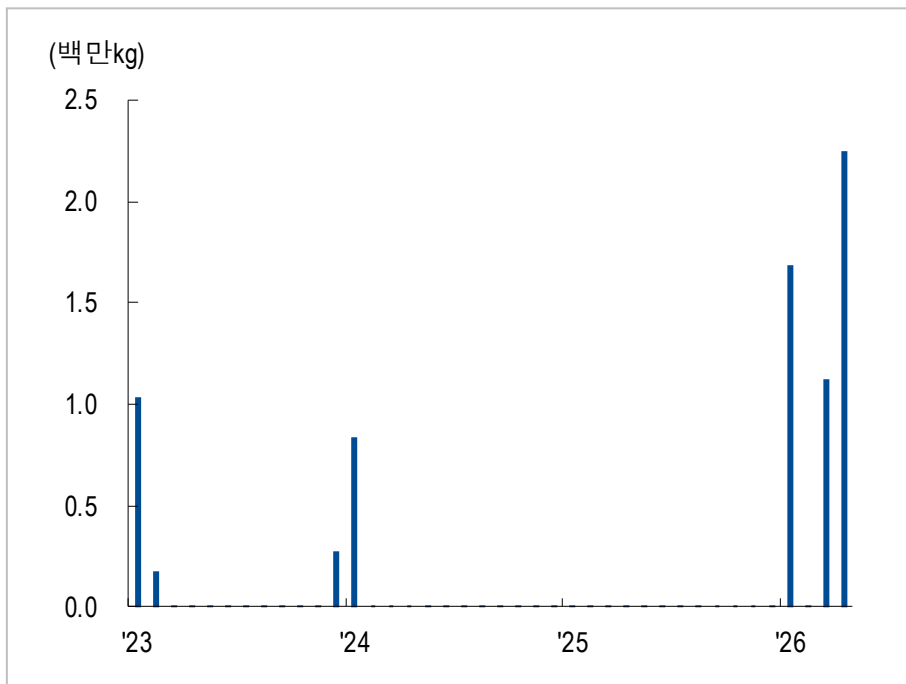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④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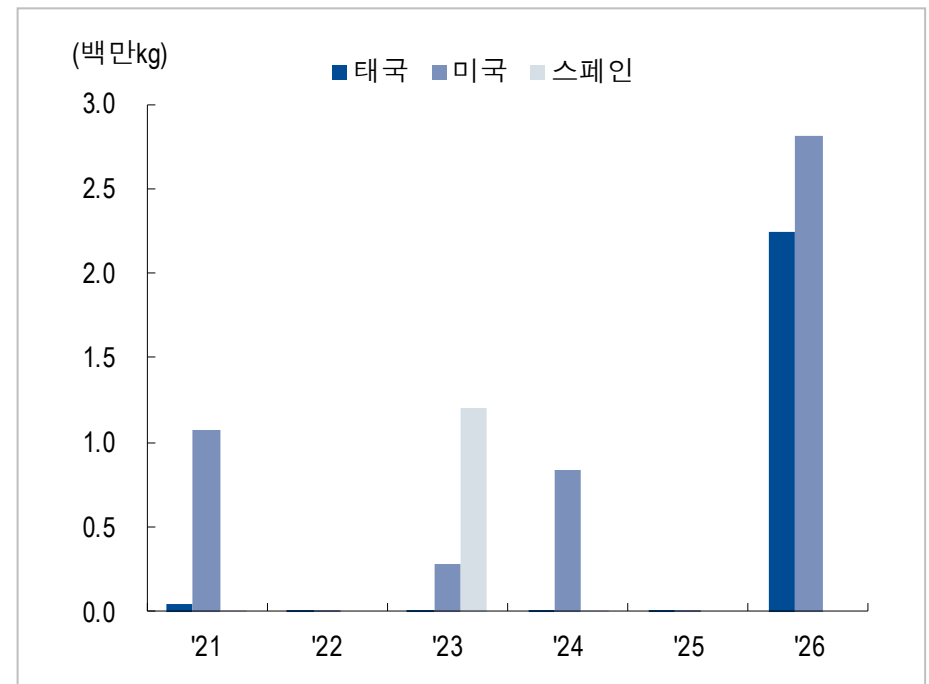
- 전년 동기 대비 일평균 계란 생산량 감소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을 추진(6~7월 중 미국 및 태국 등에서 신선란 2,000만 개 추가 수입 계획)
- 1월과 3월은 미국에서, 4월은 태국에서 수입하며 수입처를 다변화. 미국에 주로 의존하고 있던 수입 구조를 완화하고 향후 돌발 상황에도 안정적인 계란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한 수입선 다변화 조치
- 과거 2023년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한 계란값 급등을 우려해 스페인에서 계란을 수입했었음

월별 식용란 수입 추이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연도별 국가별 식용란 수입 추이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⑤ 가금농장 살처분 이후 회복까지 상당 기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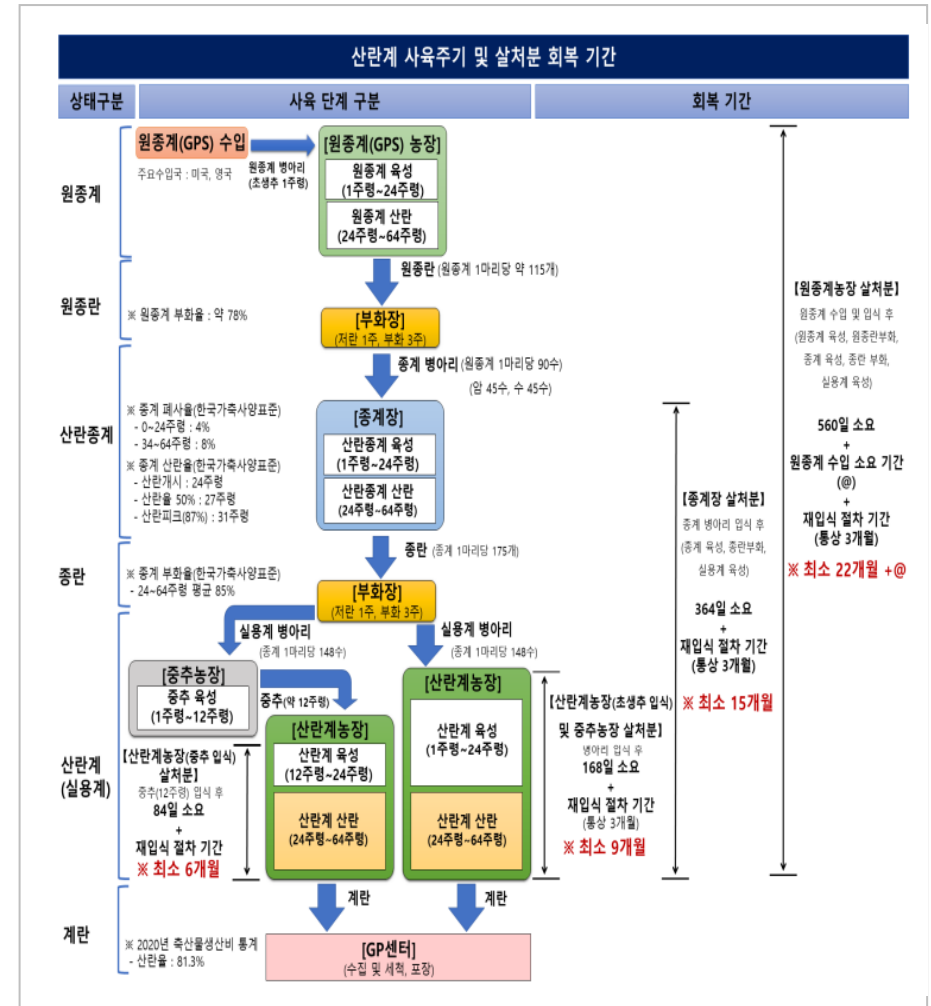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발생농장의 가축과 확산 방지를 위한 주변 농장의 가축이 살처분되면,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되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육계 농장이 살처분되면 4개월, 산란계 농장은 6~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

사육주기를 고려한 살처분 후 축종별 최소 회복 기간

구분		회복 기간	
육용계	육계	4개월	
	육용종계	11개월	
	원종계	17개월	
산란용	산란계	초생추(병아리)	9개월
		중추(약 12주령 병아리)	6개월
	산란종계	15개월	
	원종계	22개월	
오리	육용오리	4.5개월	
	종오리	11.5개월	
	원종오리	18.5개월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산란계 사육주기 및 살처분 후 회복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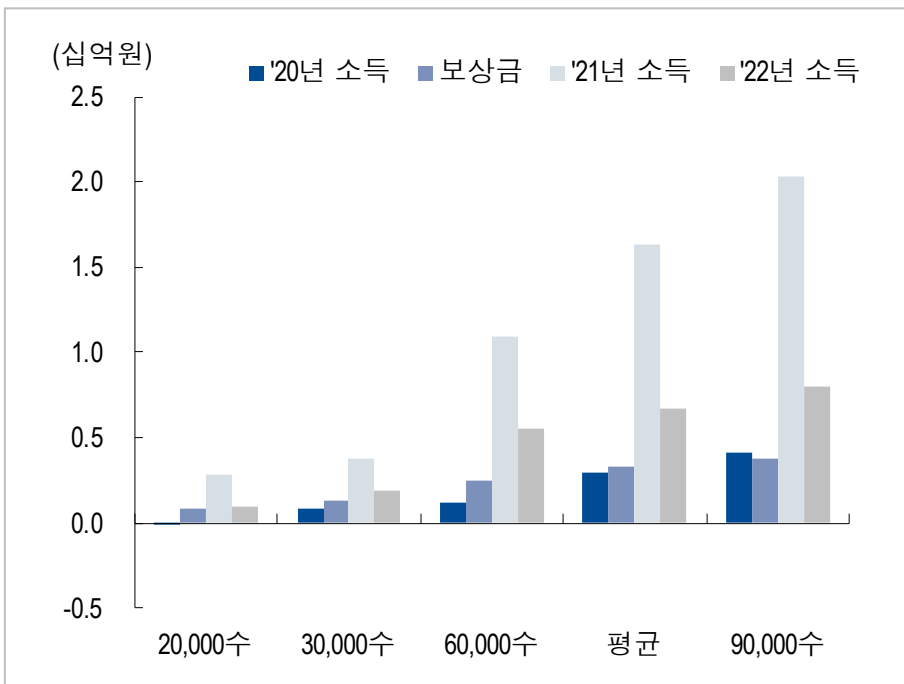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⑥ 산란계 살처분 농가와 미살처분 농가의 수익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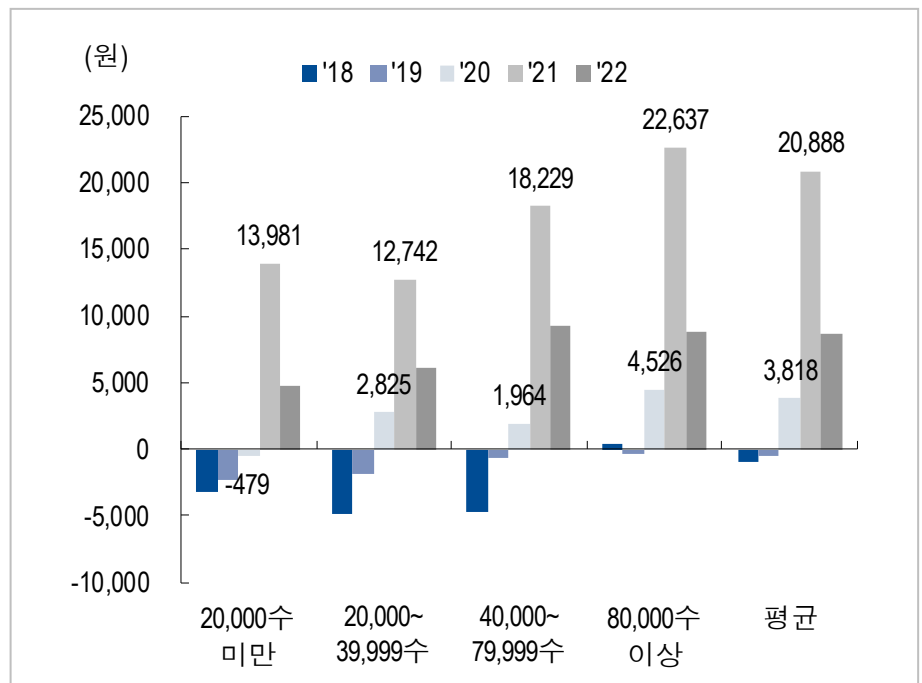
- 2020/21년 산란계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의 살처분 보상금(마리당 4,180원)과 농가당 사육마릿수(평균치 78,000마리)를 곱하면 전체 살처분시 보상금은 약 3.3억원
- 이는 2020년 농가당 소득(약 3.0억원) 보다는 많지만, 2021년 농가당 소득(약 16.3억원) 보다는 낮은 수준. 산란계의 살처분으로 2021년 계란 가격이 급등한 영향

산란계 사육 규모별 살처분 보상금 및 소득 비교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산란계 수당 수익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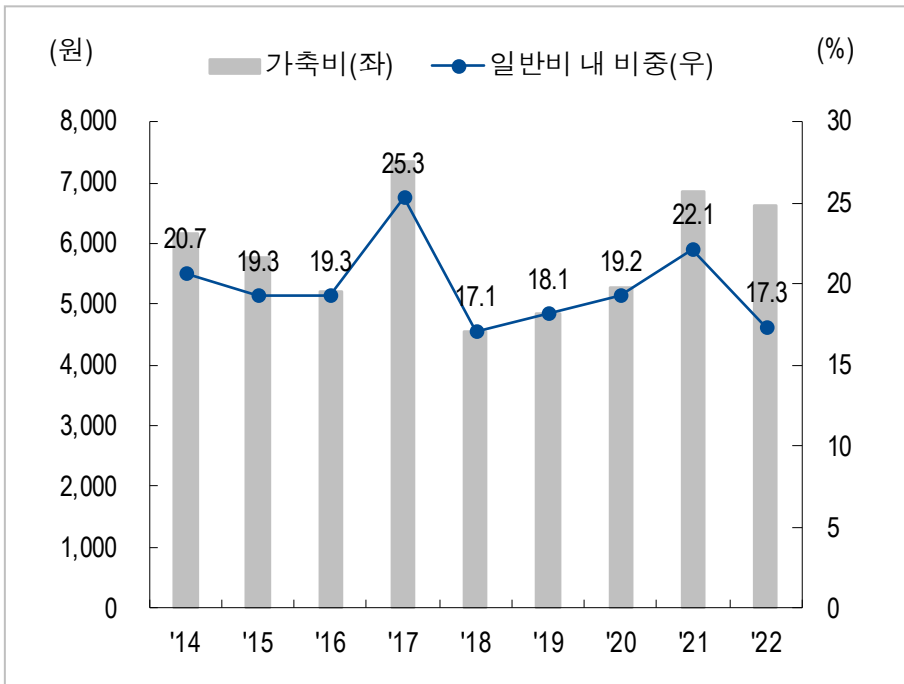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⑦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가축비와 방역치료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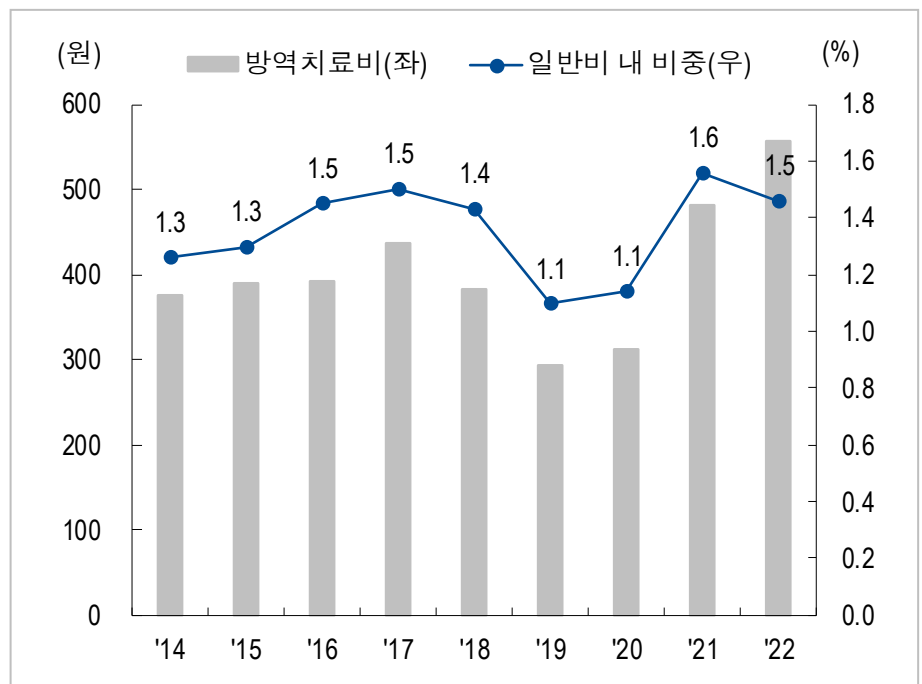
- 산란계 수당 가축비와 방역치료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증가
- 2022년 수당 가축비와 방역치료비의 일반비 내 비중이 감소한 것은 사료비 가격이 급등한 이유('21년) 18,117원 → ('22년) 24,282원)

산란계 수당 가축비 및 일반비 내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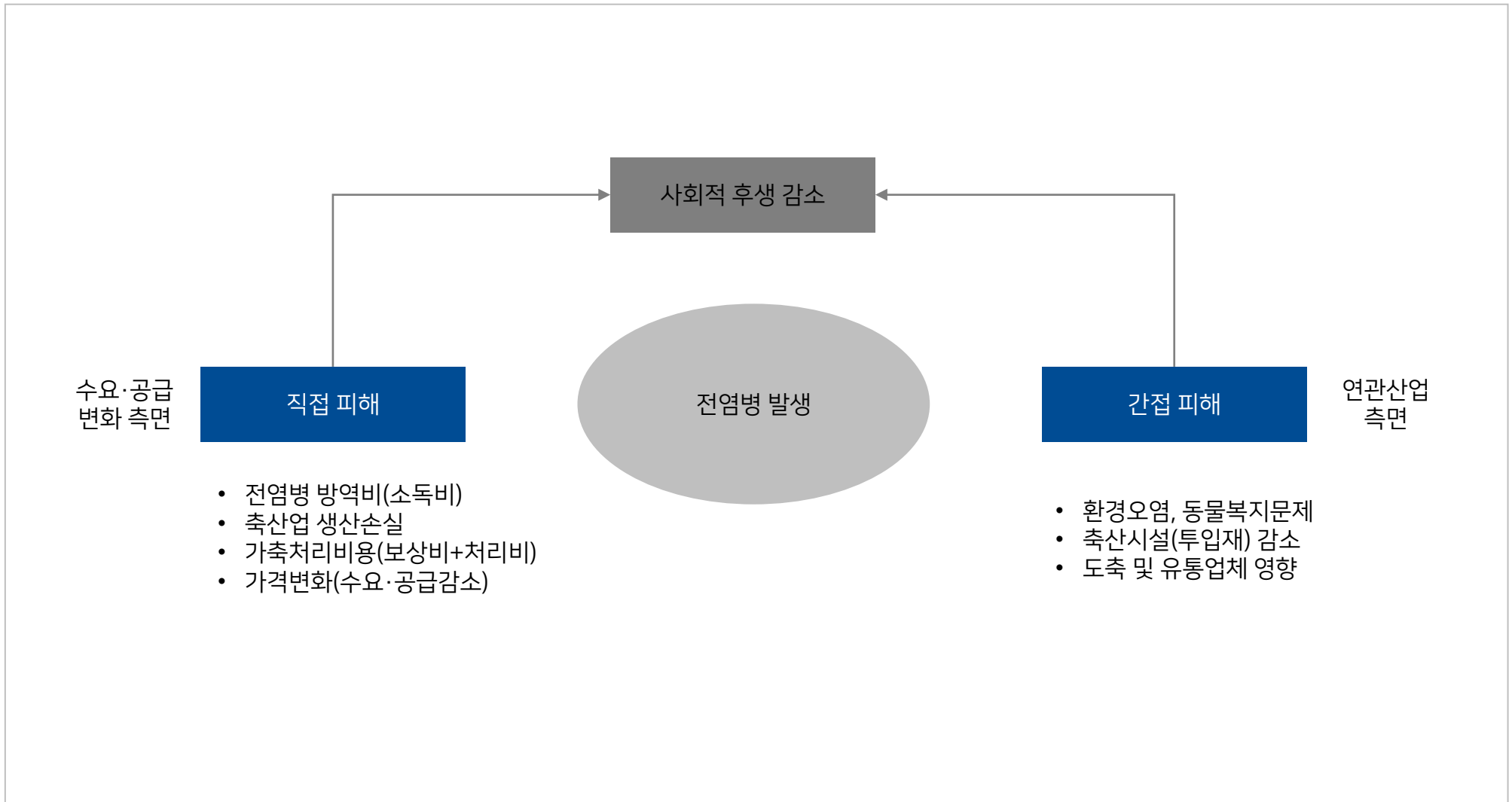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산란계 수당 방역치료비 및 일반비 내 비중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가축전염병 발생의 경제적 피해구조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국내외 질병 발생에 따른 축산업 영향 점검

III. 해외 발생 동향 및 국내 파급 가능성

소: ① 아일랜드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소고기 검역 중단 조치

- 소해면상뇌증(BSE)는 소에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병으로 일명 광우병 또는 프리온질병(Prion Diseases)으로 불림
- BSE는 정형(classical)과 비정형(atypical)로 구분. 정형 BSE는 육골분이 들어 있는 사료 등을 섭취했을 때 감염되며, 비정형 BSE는 8살 이상의 나이 든 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
-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으로 영향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2026년 4월 아일랜드산 쇠고기 검역 중단 조치

아일랜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따른 아일랜드산 쇠고기 검역 중단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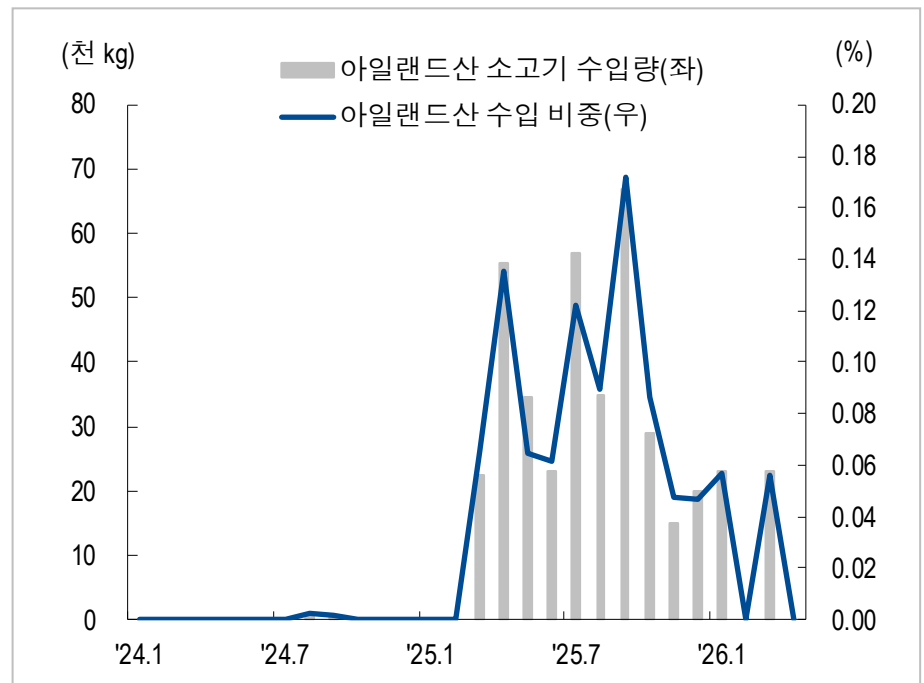
- 비정형 BSE는 고령의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며, 인체감염 사례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아일랜드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4월 13일자로 아일랜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비정형 BSE는 고령의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체 감염 사례는 없으며, 오염된 사료의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BSE와는 다르다.

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는 4월 10일(현지시간) 아일랜드의 BSE 예찰프로그램에 따른 중앙수의연구실험실의 검사 결과, 고령(9세)의 암소에서 비정형 BSE가 확진되었으며, 해당 소는 폐기되어 식품 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량 및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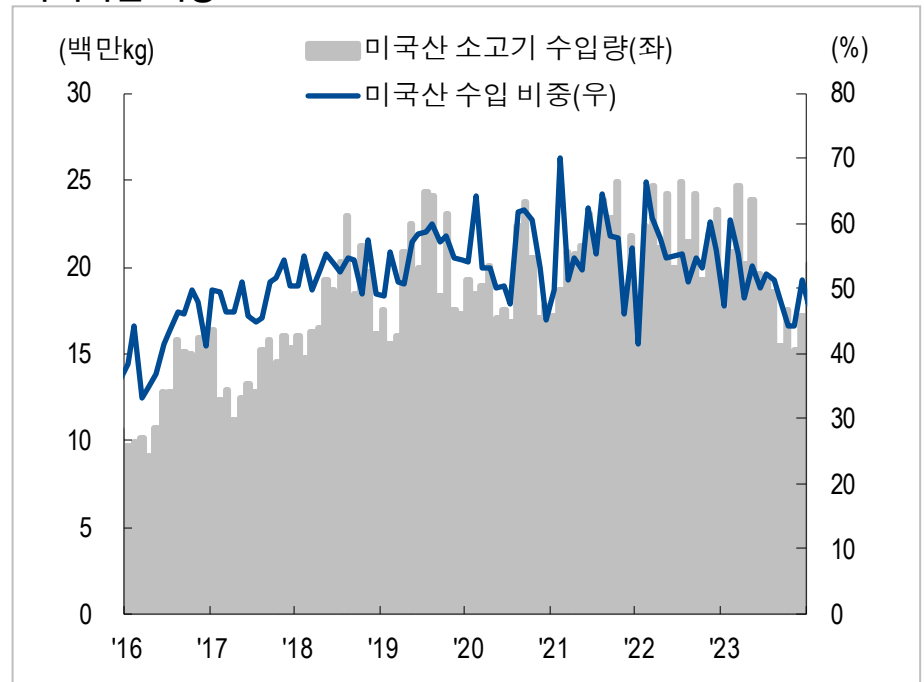
② 미국 소에서 BSE 발견에 따른 미국산 소고기 수입검역 강화 조치

- 2003년 미국에서 정형 BSE가 발생하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며,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 현재 미국산 소고기는 30개월 미만으로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소고기만 수입
- 이후 미국에서 BSE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물검사 비율 확대 등 '검역 강화' 조치를 통해 대응

미국산 소 BSE 발생 관련 조치 사항

구분	주요 내용
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워싱턴주에서 정형 BSE 발생 •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전면 금지 • 호주산/뉴질랜드산으로 대체, 소고기 가격 상승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 광우병 유발 물질 집중된 특정위험물질(SRM)은 수입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캘리포니아 젓소에서 비정형 BSE 확인 •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 확대: 3% → 30%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앨라배마주 암소에서 비정형 BSE 확인 •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 확대: 3% → 30%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플로리다주 암소에서 비정형 BSE 확인 •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 확대: 3% → 30%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도축장에서 비정형 BSE 확인 •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 확대: 3% → 10%

2016~2023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 및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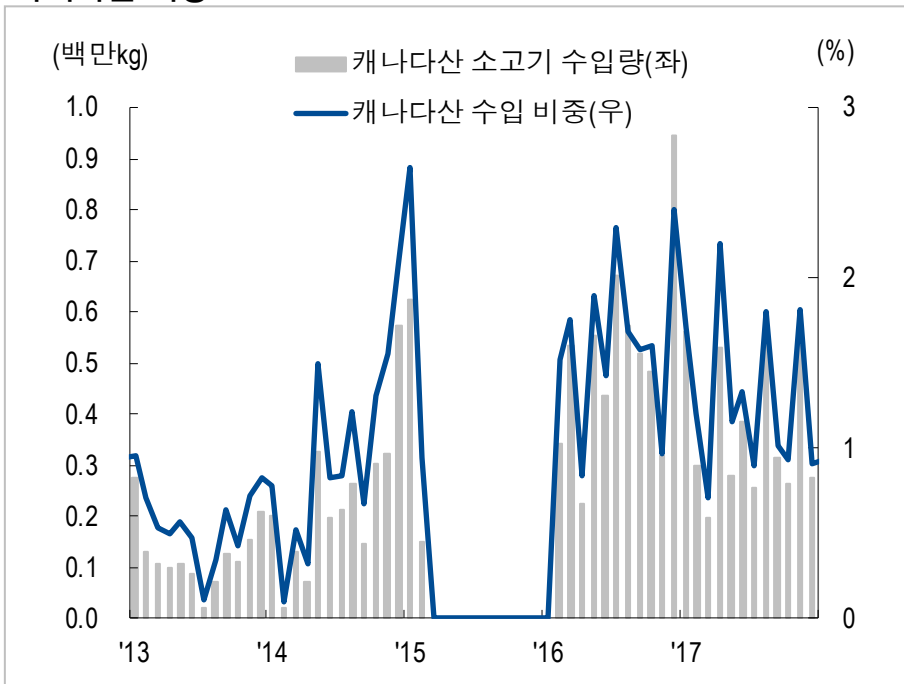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언론보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③ 2015년 캐나다 BSE 발생하면서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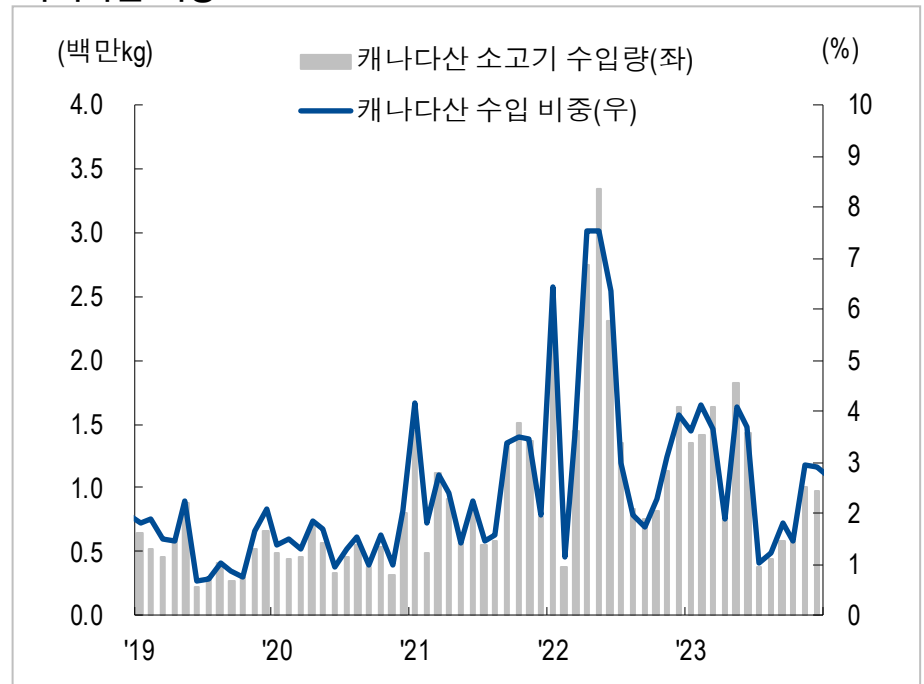
- 2015년 2월 캐나다에서 정형 BSE 발생하면서 캐나다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검역 중단 및 수입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가 12월 재개
- 2021년 12월 비정형 BSE 발생 확인되며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검역 중단 조치. 정형 BSE와 달리 비정형 BSE의 경우 교역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되면서 2022년 캐나다산 수입은 지속

2013~2017년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량 및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19~2023년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량 및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④ 2025년 프랑스 내 렘피스킨 발생으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금지

- 유럽 내 렘피스킨 발생은 2015~2017년 그리스와 불가리아 발생 이후 2025년 6월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발생
-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했으며, 프랑스산 수입량을 감안할 때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 미미한 것으로 판단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는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금지 조치

보도시점 2025. 7. 1.(화) 배포 시 배포 2025. 7. 1.(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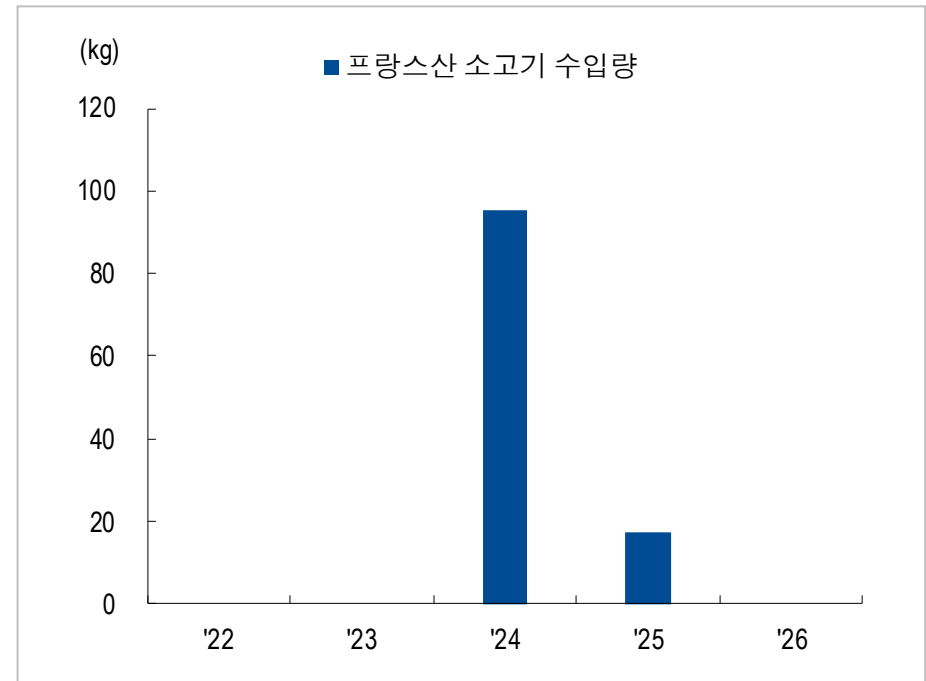
프랑스 내 렘피스킨 발생으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가 소 렘피스킨 발생을 6월 30일(프랑스 현지시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프랑스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동부 사부아 州 소재 농장의 소가 6월 23일 렘피스킨 증상을 보임에 따라 프랑스 국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6월 29일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져 취해진 것이다. 유럽 내 렘피스킨 발생은 2015~2017년 그리스와 불가리아 발생 후 금년 기준 두 번째(첫 번째 : 6월 이탈리아)이며, 농식품부는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6월 23일(발생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연도별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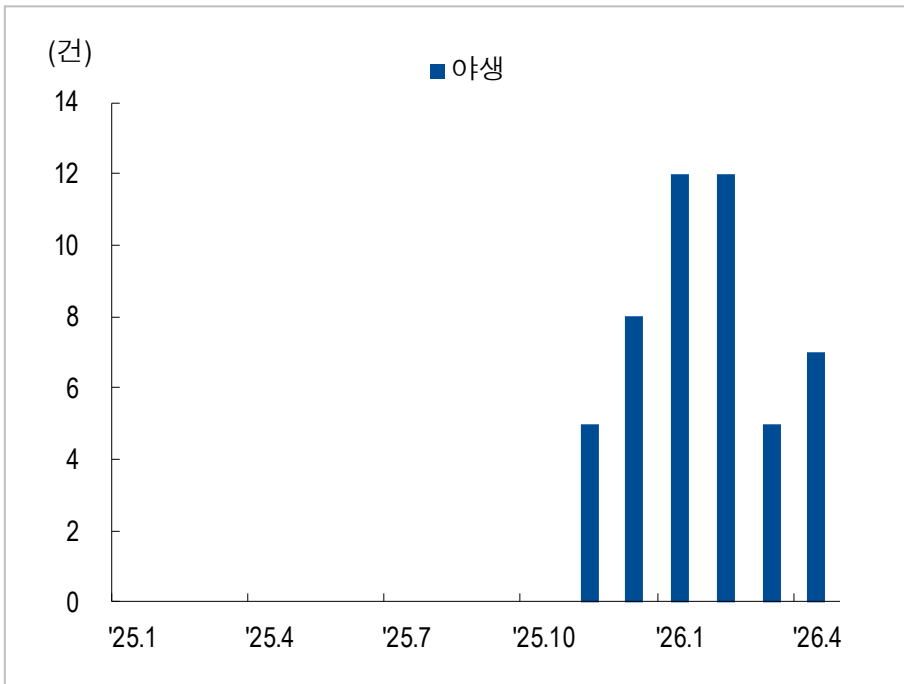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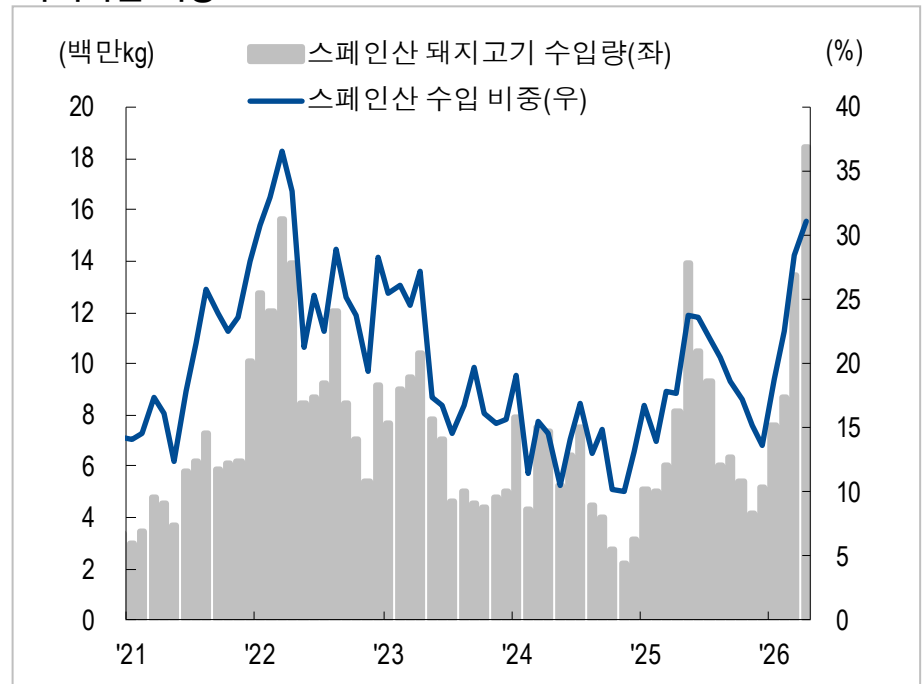
돼지: ①-1 2025년말 스페인 ASF 발생, 해당지역에 대해서만 수입 제한

- 2025년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역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ASF 검출. ASF가 발생한 '바르셀로나 등 일부 발병 지역'에 한해서만 수입 제한
- 한국은 2023년 유럽연합(EU)과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면서 '지역화 인정 협정' 체결. 수출국 전체를 막는 대신 질병이 발생한 행정 구역만 수입을 금지하고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깨끗한 지역의 물량은 계속 수입을 허용
- 2026년 들어 일부 국가의 스페인산 수입 제한 조치, 중국으로의 수출량 감소 등으로 스페인산의 한국향 수출 물량 증가

스페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건수 추이



2021년 이후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량 및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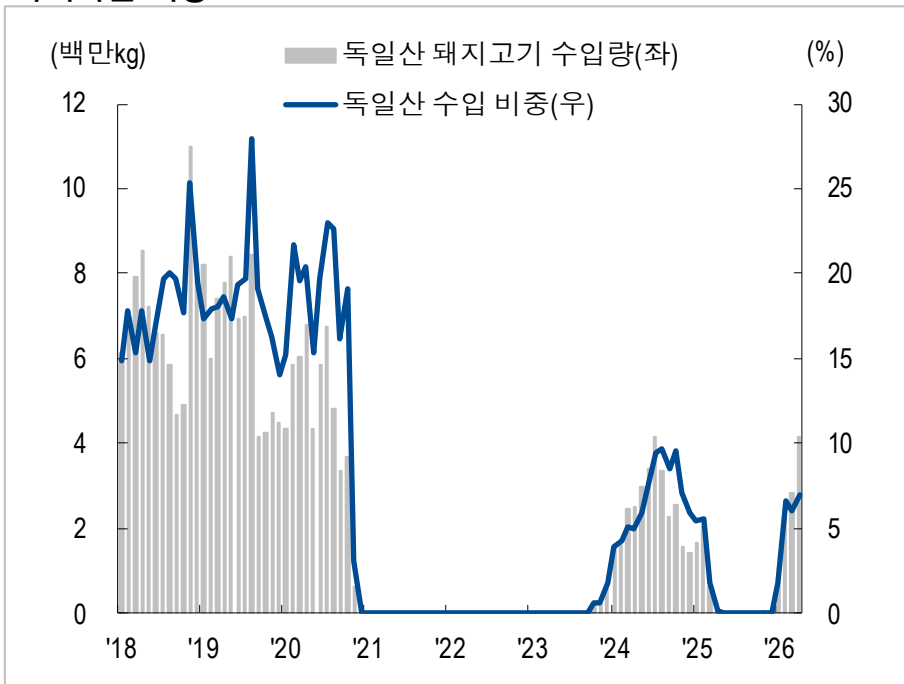
주: 스페인 동부 벨라테라(Bellaterra) 야생멧돼지에서 30년만에 처음으로 ASF 발생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② 2020년말 독일 ASF 발생으로 수입 금지 조치, 2023년말 수입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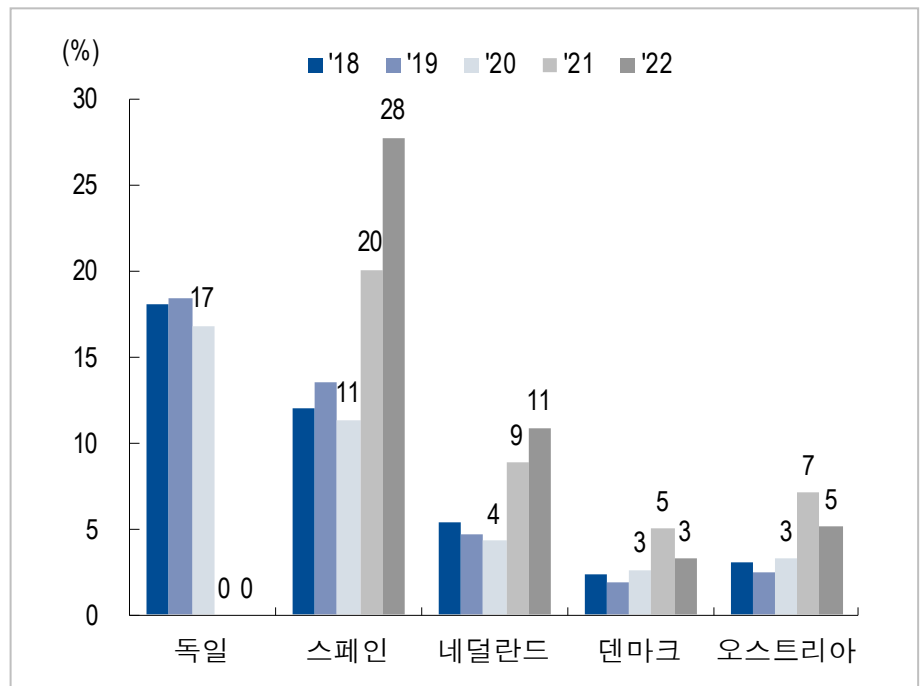
- 2020년 9월 독일 동부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 확진되었고, 정부는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 즉각적인 전면 수입 금지 조치
- 미국산에 이어 국내 수입 돼지고기 시장 2위 점유율을 차지하던 독일산의 전면 차단으로 스페인산과 네덜란드산 등 다른 유럽 지역 수입 비중 확대
- 2023년 EU와의 ASF 지역화 검역 기준 수용 이후 독일산 수입을 재개했으나, 2025년 독일 내 구제역 발생으로 재차 수입금지

2018년 이후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량 및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유럽 주요국가별 수입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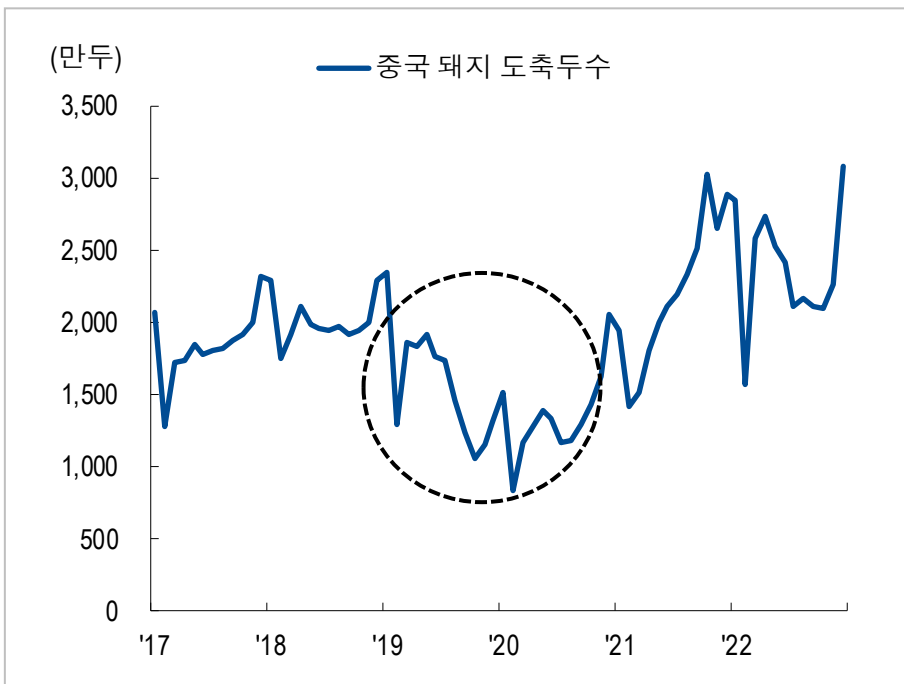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③ 2018년 8월 중국에서 ASF 발생 이후 2019년~2020년 대유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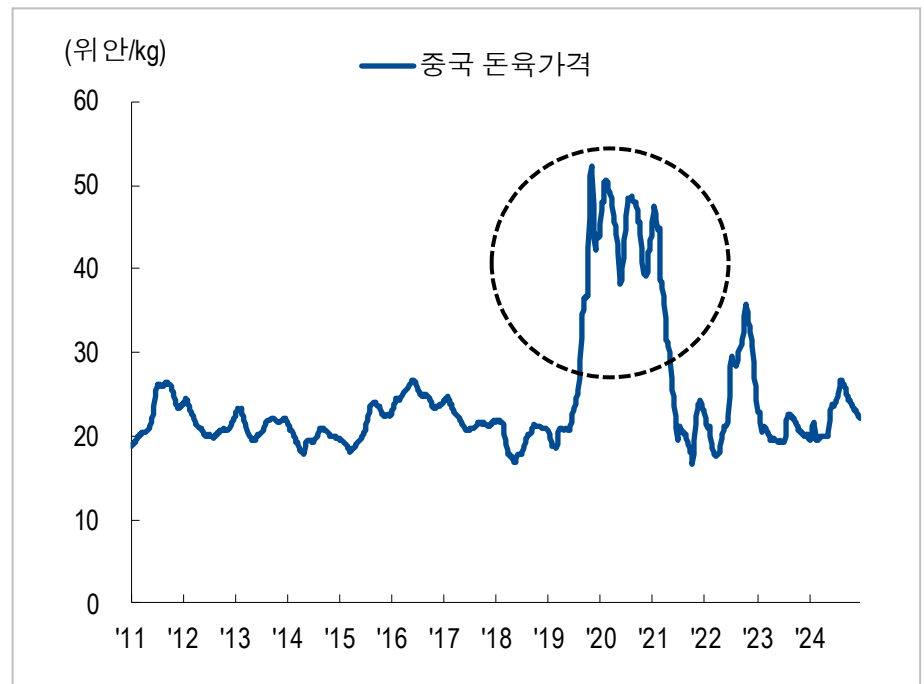
-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소비국인 중국에서는 2018년 8월 ASF 확진 후 2019년~2020년 대유행 시기를 거치며 사육두수 급감
- 중국이 글로벌 돼지고기 물량을 흡수하면서 국내 돼지고기 수입단가 상승, 국내 가공 및 외식업계 비용 부담 확대
- 중국은 2021년 하반기 이후 기업형 대형 축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차단 방역을 대폭 강화하면서 '초기 대유행' 상태는 진정

중국 돼지 도축두수 추이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중국 돈육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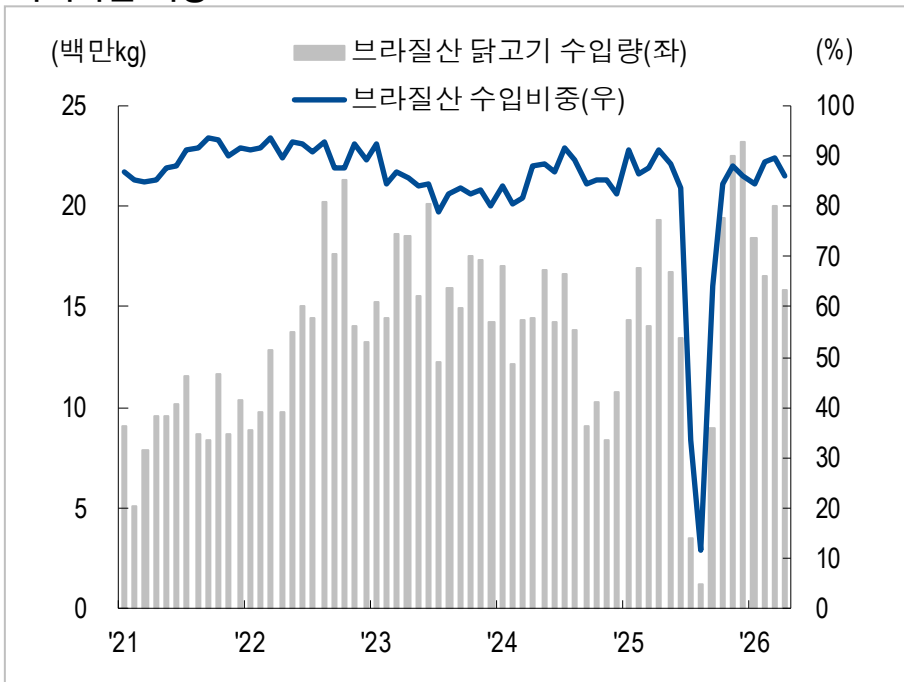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닭: ① 브라질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수입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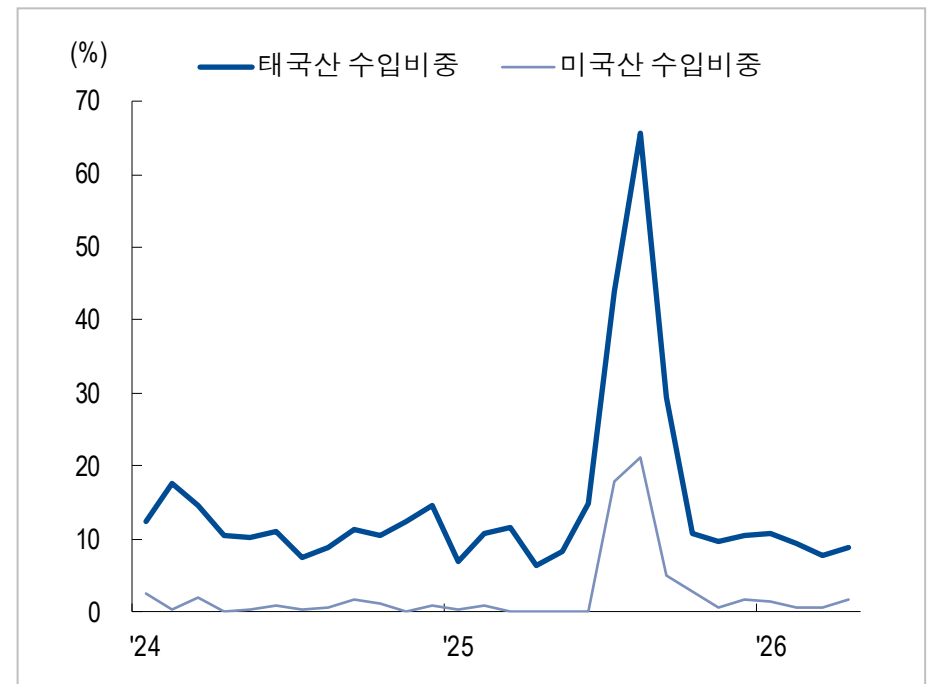
- 브라질 중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확인 후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병아리),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 금지
- 닭고기 국내 생산 확대, 업계 재고물량 방출, 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지역산 닭고기 수입허용 등을 통해 대응
-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6월까지 부분육 가격 일부 상승했으나, 태국산/미국산 수입 물량 증가 및 단기간 내 브라질산 수입 재개 등으로 가격 재차 안정화

2021년 이후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량 및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닭고기 수입에서 태국산 및 미국산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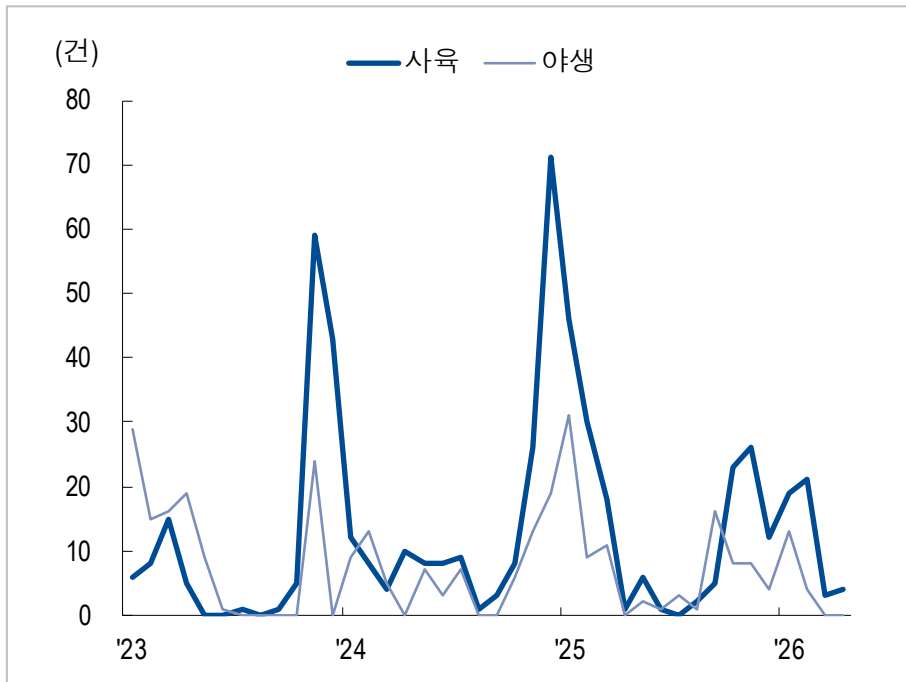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②-1 미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미국 내 계란 가격 상승 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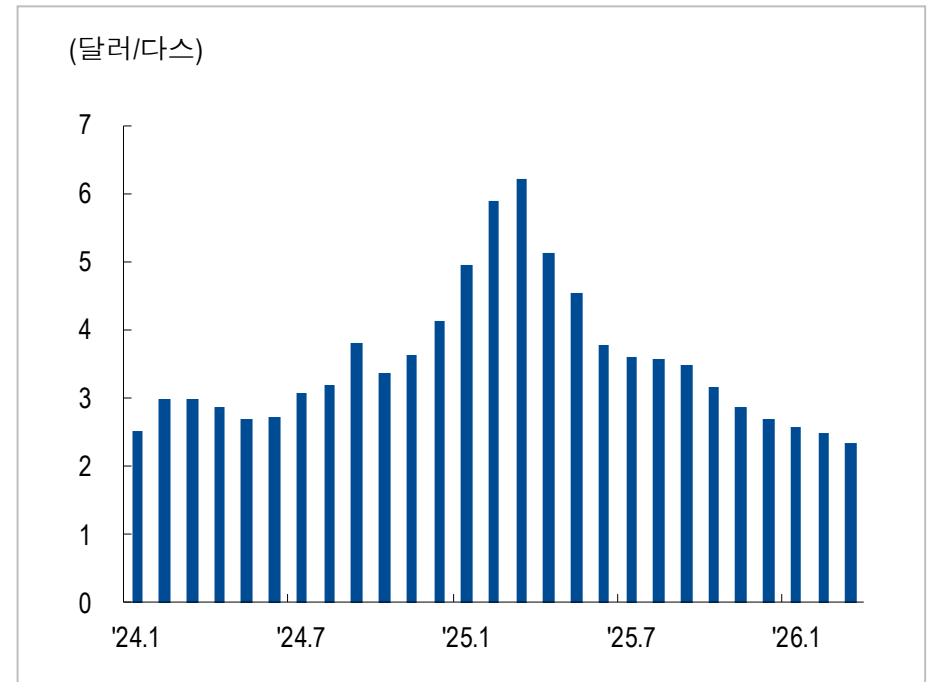
- 미국에서도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미국 내 계란 가격 상승을 야기
- 2024년말부터 2025년초까지 5,000만 마리가 넘는 산란계가 살처분되면서 심각한 계란 부족 사태 발생했으며, 계란 가격 급등
- 산란계 개체 수 증가, 수입 계란 물량 증가로 현재는 과잉 공급 상태 발생하면서 계란 가격 이전 수준으로 하락

월별 미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추이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미국 계란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②-2 2020년 이후 포유류가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사례 크게 증가

- 2020년 이후 포유류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사례 크게 증가
- 2024년 3월 미국에서 젖소의 원유 샘플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인
- 이후 감염된 젖소의 생우유를 먹은 고양이들의 집단 감염, 젖소와 접촉한 낙농장 근로자 및 소 임상 수의사들의 감염 등 확산 사례 확인
-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25년 국내 반려동물과 포유류에서 HPAI 발생 사례 미확인

H5N1 바이러스 감염 젖소로부터 인간에게 감염될 수 있는 경로



자료: 캘리포니아 보건부(CDPH,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25년 국내 반려동물과 포유류에서 HPAI 발생 사례 미확인

2025년 국내 반려동물과 포유류 가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없어

- 검역본부, 개·고양이·소·돼지·염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모니터링 결과 미검출
- 다른 종이나 사람으로의 전파 차단을 위한 선제적 예찰 및 감시 지속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과 포유류 가축(소·돼지·염소)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국내외 질병 발생에 따른 축산업 영향 요약 및 시사점

구분	주요 내용
<p>국내 발생 동향 및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적인 가축질병 사례: ①2010~2011년 구제역(FMD), ②2016~20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③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④2023년 럼피스킨병(LSD) 국내 최초 발생 • 2026년 발생: 구제역 3건(살처분은 한우 전체 사육마리수의 약 0.01%), 아프리카돼지열병 24건(살처분은 돼지 전체 사육마리수의 약 1.3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62건(산란계 살처분 전체의 약 14%) → 가축전염병으로 가금류·계란 가격 직접적 영향 • ASF 발생 이후 도매가격 하락 영향으로 돼지 생산액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감소. 도매가격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하나, 이동제한 조치 이후 물량 증가하며 가격 하락. 2019년 10월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량 감소했는데, 감소 이유로 돼지고기 안전성을 의심 • 살처분 보상금으로 일시적으로 수익 증을 수 있으나, 살처분 안한 농가의 경우 이듬해 계란 가격 상승으로 농가 소득이 크게 증가
<p>해외 발생 동향 및 국내 파급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미국 소에서 BSE 발견되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됐다가 다시 재개. 이후 수입검역 강화 조치. 미국을 제외하고는 해당 국가의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크지 않아 영향 제한적 • 돼지: 2025년 스페인 ASF 발생에서는 해당지역에서만 수입 제한. 2020년말 독일 ASF 발생 당시에는 전면 수입 금지. 2023년 EU와의 ASF 지역화 검역 기준 수용 여부에 따라 차이.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비중 높았었는데, 다른 지역 수입으로 대체 • 돼지: 2018년 중국 ASF 발생 당시에는 중국이 글로벌 돼지고기 물량 흡수하며 수입단가 상승, 국내 가공 및 외식업계 비용 부담 확대 • 닭: 2025년 브라질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수입금지. 태국산/미국산 수입 물량 증감 치 단기간 내 브라질산 수입 재개 등을 통해 대응 • 닭: '24/'25년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하면서 미국 내 계란 가격 상승 야기. 이후 산란계 개체 수 증가, 수입 계란 물량 증가로 현재는 과잉 공급 상태 발생하면서 계란 가격 이전 수준으로 하락. 2020년 이후 포유류가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사례 증가하고 있어 모니터링 필요
<p>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 체계 구축 - 발생 초기 경보시스템 도입, 가축질병 예방 홍보 강화, 방역 시스템 강화 등 •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한 2차 피해 차단 - 살처분, 오염물질 처리 등 과정에서 2차 오염 가능성 차단, 정기적 평가를 통한 지속 관리 등 • 농가 손실보전 확대 및 신속 지원, 소비위축 가능성 차단 • 가축 질병 발생 사전 예방 노력 - 위험요소 등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및 대응 시스템 개발 등

-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당사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